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關東 在方町の 발전에서 幕府와
藩의 역할과 성격

－ 武藏國 秩父郡 大宮郷을 중심으로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강민주

關東 在方町の 발전에서 幕府와
藩의 역할과 성격

- 武藏國 秩父郡 大宮郷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박 훈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강 민 주

강민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에도 시대(江戸時代 : 1603~1868) 일본 관동에 있는 무사시 국(武藏國) 지치부 군(秩父郡) 오미야 향(大宮郷)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치부 군은 1884년(明治17)에 일어난 지치부 사건(秩父事件)으로 인해 대개 농촌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치부 군의 행정 중심지인 오미야 향은 에도 시대에 지치부 신사(秩父神社)와 지치부 권(秩父絹)을 중심으로 번성한 자리카타마치(在方町)였다.

자리카타마치는 고리부교(郡奉行)·다이칸(代官)이 지배하는 ‘자리카타(在方)’로 되어 있는 지역에 존재하는 도시 공간을 말한다. 막번체제(幕藩體制)에서 농민과 상인은 거주지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무라(村)에는 오직 농민들만 남고 무사를 비롯한 상인, 직인, 사사(寺社) 관계자들은 마치(町)에 거주했다. 그런데 ‘자리카타마치’는 농촌 지역에 존재하는 마치고 법적으로는 무라이지만 실제로는 구성원들이 상업을 하며, 일부 무사도 체재한 ‘향촌 도시’였다. 따라서 자리카타마치를 연구하는 것은 이념상 상업이 금지된 농촌 지역이 점차 도시화가 되어가는 양상을 검토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자리카타마치를 지배 권력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마치(町)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파악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일본 도시사 학계의 연구 조류가 그러했듯이, 자리카타마치에 관한 연구 역시 마치의 규약, 공간 구조, 주민 신분, 경제 활동, 사람들의 움직임 등 마치 내부의 사료들을 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부와 번의 지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이상, 주민들의 자율성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리카타마치도 막부와 번의 지배를 받고 성립·발전하였으므로 ‘지배’와 ‘자율’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마치의 자율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해당하는 막부와 번의 지배 정책과 그것이 마치에 끼친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미야 향이 자리카타마치로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 막부 정책의 영향과 아베 씨(阿部氏) 지배 시기 오시 번(忍藩)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 보았다.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시 번 번주 아베 씨는 역대 번주들이 막부 역직을 맡아 번주의 경비가 증가하여 번 재정에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을 쌀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는 지치부령(秩父領 : 지치부 군의 오시 번령)은 오시 번의 중요한 현금 수입원이었다. 그 중 오미야 향은 지치부령 전체 무라의 연공 금액에서 약 20%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오미야 향에서는 매년 상월대제(霜月大祭)와 함께 열리는 견대시(絹大市)에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많은 양의 견이 거래되었다.

오시 번은 오미야 향의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주목하고 견시와 제례에 개입하였다. 18세기 초에 번주 아베 마사타카(阿部正喬)가 지치부령(秩父領)을 순행하고, 이후 교호 연간(享保年間 : 1716~1735)부터 오미야 향의 상월대제와 견대시에 관한 새로운 정책들을 펼쳤다. 이 시기부터 상월대제에 화려한 쓰케마쓰리(付祭)가 흥행되기 시작하고, 번에서는 매년 번주의 대리인을 파견하였다. 또한, 견대시의 단속을 위한 관리를 파견하고, 매년 와리야쿠(割役)에게 견대시의 거래량을 보고하게 하였다. 이후 견대시와 견시의 거래량이 증가하여 18세기 후반에는 전성기를 이루고 그와 함께 다른 상공업도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오시 번은 오미야 향과 향내 부유한 주민들에게 어용금을 자주 걷었다. 즉, 오시 번은 번의 재정 확보를 위해 오미야 향을 주시하고, 이곳이 도시로 발전하는 데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편, 막번체제는 이념적으로는 농민에게 상행위를 금지했지만, 병농분리의 전제, 참근교대제(參勤交代制)의 부담, 미납과 금납을 불문하고 연공이 재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거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농민들의 상업 활동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배자가 농업과 상업 중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정책의 차이가 발생했다. 오미야 향은 교호 개혁(享保改革), 다누마 시대(田沼時代) 중상주의 정책, 간세이 개혁(寬政改革)의 중농주의 정책 등 막부의 정책에 따라 번성하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 특히 관동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견시에 관한 막부의 정책은 오미야 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때 오시 번은 막부의 명령을 기본적으로는 따르고 있지만 번의 이익과 지치부령의 안정에 불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는 막부와 다른 정책 노선을 선택하여 오미야 향의 안정과 번영을 꾀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례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18세기 후반에 막부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미야 향을 포함한 무사시 국과 고즈케 국(上野國) 견시에 개회소(改會所) 설치령을 내렸는데, 오시 번이 막부의 명령을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막부의 명령이 전달된 고즈케 국 서부에서는 대규모 잇키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막부의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오미야 향에서는 막부의 명령이 폐지될 때까지 오시 번에 갑자기 정지된 견시의 재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규모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시 번은 회소 설치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치부 령의 주민들로부터 걷는 연공 및 어용금이 주요 재원 중 하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막부의 명령을 따라 견시에 회소를 설치하고 견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되면 견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치부 령 주민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오시 번은 오미야 향의 견시를 보호하기 위해 막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례는 19세기 초반에 막부의 풍속통제령으로 오미야 향의 쓰케마츠리(付祭)가 금지되어 오미야 향에 경제적 타격을 주자 오시 번 당국과 지치부 령의 다이칸(代官)이 쓰케마츠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지치부 령 다이칸은 오미야 향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마다 그것을 묵살하지 않고 오시 번청(藩廳)에 보내 번 관리들의 의견을 물었다. 번 당국에서는 오미야 향이 제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쓰케마쓰리 재흥에 대해 막부에 문의를 하였다. 또한, 다이칸은 청원서에 들어갈 내용을 지도하고, 주민들이 작성한 청원서를 가필해주며, 쓰케마쓰리가 허가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청원을 하도록 지시하라고 와리야쿠에게 내밀히 알려주기도 했다. 쓰케마츠리가 재개된 이후에도 막부에 의해 다시 금지될까 봐 화려하게 하지 않도록 고리부교가 오미야 향 주민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계속해서 오미야 향의 변성에 신경을 썼다. 이처럼 지치부 령 다이칸과 오시 번 당국에서 쓰케마츠리를 재흥시켜 오미야 향을 변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베 씨 지배 시기 오시 번은 지치부 령에 전매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民)’ 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 ‘인정(仁政)’ 이기도 했다. 오시 번도 마츠다이라 씨(松平氏)의 지배 시기에는 막말 개항으로 외국 무역이 개시되자 생사를 전매했지만, 적어도 아베 씨 지배 시기에는 독자적인 '인정(仁政)'을 펼쳤음을 오미야 향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치부 사건은 시장의 격심한 변동에 따라 농민들이 궁핍한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정부가 오시 번이 행했던 것과 같은 전통적인 관념의 '인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오미야 향은 막부의 정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오시 번과 번의 관리인 지치부 령 다이칸은 오미야 향의 변성을 위해 노력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오미야 향의 발전은 주민들의 ‘자치’ 보다는 번과 주민들의 ‘협치(協治)’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베 씨의 지배 시기에 오미야 향의 발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미야 향 내부의 상황뿐 아니라 오시 번, 특히 다이칸의 역할과 동향, 그리고 막부 정책의 영향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자리카타마치(在方町), 막부(幕府), 오시 번(忍藩), 지치부군(秩父郡), 오미야 향(大宮郷), 견시(絹市), 제례(祭禮)

학 번 : 2015-22460

목 차

국문초록.....	i
머리말	1
I. 忍藩과 秩父郡 大宮郷의 絹市・祭禮.....	9
1. 忍藩의 재정과 秩父郡 大宮郷.....	11
2. 大宮郷 絹市・祭禮에 대한 忍藩의 개입.....	19
II. 18세기 후반 幕府・忍藩의 정책과 大宮郷의 絹市.....	28
1. 田沼時代 大宮郷 絹市の 변성	28
2. 幕府의 大宮郷 絹市 改會所 설치에 대한 忍藩의 대처.....	35
III. 19세기 초반 幕府・忍藩의 정책과 大宮郷의 祭禮.....	43
1. 寛政改革의 영향과 秩父郡 大宮郷의 付祭 금지.....	44
2. 大宮郷의 付祭 재개에 대한 忍藩 秩父領 代官의 역할.....	50
맺음말	60
참고문헌.....	63
日文要旨.....	68

머리말

1884년(明治17) 10월 31일, 일본 사이타마 현(埼玉縣) 지치부 군(秩父郡)¹⁾에서 대규모 농민 봉기가 발생했다. 바로 ‘지치부 사건(秩父事件)’이다. 당시 지치부의 주요 산업은 양잠과 제사(製絲)였다. 그런데 1883년에 생사 가격이 절반으로 급락하고 1884년에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량까지 급감했다.²⁾ 이러한 경제적 침체기 속에서 지치부 군의 농민들은 고리대에 의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증세나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당시 자유당 당원들과 함께 곤민당(困民黨)을 결성하여 채무 상환 연기를 메이지 정부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채무 상환 연기·조세[地方稅]³⁾ 연기·학교비 감소 등’⁴⁾을 요구한 봉기가 일어났다. 이들은 지치부 군의 행정 중심지인 오미야 향(大宮郷 : 현 지치부 시)에 있는 군청 사무실, 경찰서, 재판소 등을 습격해 순사를 몰아내고 지치부 군의 대부분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파견한 헌병대에 의해 열흘 만에 진압되었다.

지치부 사건은 3000명 이상의 농민이 2000여 명이 넘는 구식 총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무장하여 정부의 정규군에 정면으로 저항한 최초의 농민 봉기⁵⁾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일본 근대사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건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도 시대(江戸時代 : 1603~1868) 오시 번(忍藩) 번주(藩主) 아베 씨(阿部氏)의 지배 하에 있었던 지치부 령(秩父領)⁶⁾, 그중에서도 오미야 향의 발전 과정을 살펴 봐야 한다. 지치부 지역은 지치부 사건으로 인해 대개 농촌으로 알려졌지만, 오미야 향은 지치부 신사(秩父神社)와 지치부 견(秩父絹)을 중심으로 번성한 자리카타마치(在方町)였다.

자리카타마치는 고리부교(郡奉行)·다이칸(代官)이 지배하는 ‘자리카

1) 1879년(明治12) 3월 17일, 사이타마 현에서 군구정촌편제법(郡區町村編制法)이 시행되어, 행정구역으로 지치부 군(秩父郡)이 발족되었다. 군역소(郡役所)는 오미야 향(大宮郷)에 설치했다.

2) 牧原憲夫, 『民權と憲法 シリーズ日本近現代史2』, 岩波書店, 2006, p.74

3) 본고에서 ‘괄호()’ 안에 있는 한자는 한자음 또는 일본어 발음 그대로 표기하였고, ‘대괄호[]’ 안에 있는 한자는 뜻을 풀어서 표기하였다.

4) 『秩父事件史料2』(埼玉新聞社 編, 1972), p.246

5) 色川大吉, 「民衆蜂起や共同體」, 『同時代への挑戦』, 筑摩書房, 1982, p.68

6) 에도 시대 지치부 군은 막부령(幕府領)과 오시 번령(忍藩領)이 공존하고 있었다. 본고에서 지치부 령(秩父領)이라고 표기하면 지치부 군의 오시 번령을 나타낸다.

타(在方)’로 되어 있는 지역에 존재하는 도시 공간을 말한다.⁷⁾ 막번체제(幕藩體制)⁸⁾에서 농민과 상인은 거주지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무라(村)에는 오직 농민들만 남고 무사를 비롯한 상인, 직인, 사사(寺社) 관계자 등은 마치(町)에 거주했다. 그런데 ‘자리카타마치’는 농촌 지역에 존재하는 마치로 법적으로는 무라이지만 실제로는 구성원들이 상업을 하며, 일부 무사도 체재한 ‘향촌 도시’였다. 따라서 자리카타마치를 연구하는 것은 이념상 상업이 금지된 농촌 지역이 점차 도시화가 되어가는 양상을 검토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 도시 역사학 내에서 ‘자리카타마치’에 관한 선행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⁹⁾ 우선 전후(戰後)부터 1970년대까지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조카마치(城下町), 특히 삼도(三都 : 도쿄, 교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연구되다가 50년대 후반부터 자리카타마치에 대해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자리카타마치는 번주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농촌에 제한적으로 상업이 허가된 곳으로 조카마치에 종속된다고 이해되었다. 또한, 자리카타마치를 포함한 도시사에서 도시 주민들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

7) 에도 시대의 영민 지배는 일반적으로 ‘자리카타(在方)’와 ‘마치카타(町方)’로 나뉜다. ‘자리카타’는 ‘무라카타(村方)’로도 표기되어 농촌 지역이나 향촌을 가리키고, ‘마치카타’는 영내 중심 도시인 조카마치(城下町)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자리카타’는 ‘농촌 지역’과 ‘조카마치’에서 보면 ‘지방’이라는 의미로, 자리카타마치는 지방 소도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高橋恒夫, 『近世在方集住大工の研究』, 中央公論美術, 2010, p.5).

기존에는 이것을 자이마치(在町) 또는 자이고마치(在郷町)로 불렀다. 막번 영주가 연공미(年貢米)의 환금 혹은 역참 기능을 부과하기 위해 설정했다는 의미로 자이마치로 부르고, 상품유통이나 농촌 공업의 거점을 자이고마치로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슈쿠바마치(宿場町 : 역참 도시), 미나토마치(港町 : 항구 도시), 몬젠마치(門前町 : 신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라는 기능과 입지조건에서 붙여진 명칭도 있다. 와타나베 고이치(渡邊浩一)는 지금까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던 자리카타에 있는 도시적인 공간을 근세 도시 유형의 하나로 파악하기 위해 일괄해서 자리카타마치로 규정하였다(渡邊浩一, 『近世日本の都市と民衆』, 吉川弘文館, 1999, p.4, p.122).

또한, 자리카타마치는 법제적으로는 농촌에 편입되어 있는데, 마치카타에 준하는 도시적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호수는 200채에서 1000채 정도, 인구는 1,000~5-6000명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혼바쿠쇼(本百姓 : 토지·집을 소유하고, 연공(年貢)·제역(役)을 부담하는 농민)’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상공업은 농촌 부업(農間渡世)의 취급을 받고 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혼바쿠쇼’라고 하고 연공을 납부해도 실체는 도시민으로 상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다(「在郷町」, 『日本歴史大辭典 5 増補改訂版』(日本歴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河出書房新社, 1968), p.16 ; 「在郷町」, 『郷土史辭典 新版』(大塚史學會 編, 朝倉書店, 1969), pp.221~222).

8) 막번체제(幕藩體制)는 에도 시대의 중앙 정부인 에도 막부와 지방 정부인 여러 번으로 구성된 정치적·사회적 체제를 의미한다. 막부와 각 번이 정치적인 지배 권력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9) 渡邊浩一, 『近世日本の都市と民衆』, 吉川弘文館, 1999, pp.5~15 ; 杉森哲也, 『近世京都の都市と社會』, 東京大學出版會, 2008, pp.5~10 ; 田中喜男, 『近世在郷町の研究』, 名著出版, 1990, pp.2~17

수동적인 존재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면 이러한 연구 조류가 변화한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도시사에서 도시 주민의 자치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도시 내부 구조에 집중하고 외부 영향을 배제하는 연구 풍토가 형성되었다.¹⁰⁾ 연구자들은 마치(町) 내부의 사료를 주로 검토하여 마치의 규약, 주민 신분, 공간 구조, 공동체 또는 주민결합의 특성 등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민들은 기존의 평가처럼 수동적이지 않고, 상당한 조직력, 정보력, 경제적 힘을 가진 존재로 평가되었다.

이 시기 자이카타마치에 관해서는 와타나베 고이치(渡邊浩一)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자이카타마치를 ‘주민결합’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여, “ ‘신분공동체’ 로 권력적으로 담보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창출해 낸 자발성·자주성·자생성을 가진 집단”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어떤 집단이 권력의 담보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라는 시점에서 보면 사회의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성립·전개해온 것을 의미한다.¹¹⁾

2000년대 이후에는 사카이 가즈스케(酒井一輔)의 연구가 있다. 그는 와타나베 고이치의 ‘자이카타마치’와 ‘주민결합’이라는 두 가지 분석 시각을 받아들이면서도, 보다 정합적으로 분석하려면 자이카타마치에서 도시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마치’ 조직을 파악하고, 삼도(三都)·조카마치(城下町)와는 다른 고유의 특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근세 후기 시모우사 국(下總國) 가토리 군(香取郡) 사와라무라(佐原村)의 新橋本町, 本橋本町, 下分町¹²⁾와 오미야 향의 나카마치(中町)의 마치 규약(町規約)을 분석하여 자이카타마치의 기능과 특질을 규

¹⁰⁾ 1980년대 일본 근세 도시사 연구의 주류는 아사오 나오히로(朝尾直弘)의 ‘지연적·직업적 신분 공동체’론(朝尾直弘, 「近世の身分制と賤民」, 『部落問題研究』 68, 1981)과 요시다 노부유키(吉田伸之)의 도시의 사회=공간구조를 둘러싼 ‘분절적 파악’이라는 방법이다. 후자는 도시 전체를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내부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으로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분절구조론으로 전개되었다(吉田伸之, 『巨大城下町江戸の分節構造』, 山川出版社, 2000). 1990년대에 들어서면 쓰카다 다카시(塚田孝)의 ‘신분적 주연론(周縁論)’이 근세 신분제 연구와 도시사 연구에서 커다란 조류의 하나가 된다(塚田孝·吉田伸之·脇田修 編, 『身分の周縁』, 部落問題研究所, 1994). 또한, 1990년대의 연구 동향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회=공간구조론’의 전개이다. 도시의 사회구조와 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한 방법으로, 그 성과의 결실이 1989~90년에 걸쳐 간행된 『日本都市史入門』 전3권(제1권 ‘空間’, 제2권 ‘町’, 제3권 ‘人’)이다(杉森哲也, 上同, 2008, pp.5~6).

¹¹⁾ 渡邊浩一, 上同, pp.1~3

¹²⁾ 본고에서 고유 명사의 경우 정확한 발음이 확인 불가능할 경우 한자만 표기한다.

명하였다.¹³⁾

한편,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오미야 향에 관한 연구로는 사카이 가즈스케의 연구 이외에 1994년과 1996년에 『歴史地理學調査報告』 6~7에 실린 다섯 편의 논문이 있다.¹⁴⁾ 이 중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는 19세기에 작성된 오미야 향 나카마치(中町)의 마치 규약(町規約)을 중심으로 ‘마치’의 구성, 제례, 기능을 분석하여 근세 후기에 마치 규약이 마치의 주민(町民)에 의해 작성되었고, 내용에는 공동 생활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심은 지치부 신사의 축제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치부 오미야 향에서 ‘마치’는 막부와 번에 의해 설치되거나 혹은 보좌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그 지역의 경제와 생활에 밀착한 조직으로 마치의 주민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석하였다.¹⁵⁾

상술한 연구들은 대부분 분석 범위가 지치부 군 오미야 향 내부에 국한되어 있고, 막부와 오시 번의 정치·경제의 맥락 속에서 오미야 향을 파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오미야 향의 마치를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 조직으로 파악할 뿐, 막부와 번의 역할은 등한시하는 문제점이 있

¹³⁾ 酒井一輔, 「近世後期關東在方町における町規約と構成員」, 『史學雜誌』 123(3), 2014, pp.375~401

¹⁴⁾ 야마사키 도시로(川崎俊郎), 야마사와 마나부(山澤學), 고노 게이이치(河野敬一)는 지치부 오미야 향의 도시 형성과 상업의 변천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지치부 신사의 자료와 겐로쿠 연간(元祿年間) 이후의 마치에즈(町會圖)·유서서(由緒書) 등을 통해 오미야 향의 세 마치가 각기 다른 경위로 형성되었으며, 근세 중기 이후 견의 상품 유통이 에도와 교토 중심으로 변화한 점과 다른 지역의 상인이 지치부 오미야에 온 점이 오미야 향의 도시 변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였다(川崎俊郎·山澤學·河野敬一, 「秩父大宮の都市形成と商業の變遷」, 『歴史地理學調査報告』 6, 筑波大學歴史・人類學系歴史地理學研究室, 1994, pp.103~121).

다나카 다쓰야(田中達也)는 근세 초기의 오미야마치의 구성원에 주목하여 마치의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자의 출신과 사회적 성격의 분석을 통해 마치의 형성 과정을 해명하였다(田中達也, 「近世大宮町の形成過程」, 『歴史地理學調査報告』 7, 1996, pp.1~15).

야마사와 마나부(山澤學)는 이세(伊勢)에서 오미야 향 나카마치로 온 의사 가타야마가(片山家)의 계보를 중심으로 특히, 간세이 연간(寛政年間 : 1789~1801)에 에도 출신 약종점(藥種店) 이세야(伊勢屋) 가헤(嘉兵衛)가 가타야마 가부터 명적(名跡)을 상속한 경위를 검토하여 오미야마치에 타지역 상인이 정착했던 과정을 분석하였다(山澤學, 「秩父郡大宮町における他國商人の定着」, 上同, pp.49~59).

히라노 데쓰야(平野哲也)는 지치부 견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검토하였다. 그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기에 걸쳐 지치부 군 내에는 에도 도매상의 견 수요에 의해 견 생산이 고양되는 것을 계기로 상(桑)·견(繭)·사(絲)의 각각 상품화가 진행되었고, 상품의 집하·판매에 관해 원료 생산에서 제품 가공까지 분화된 과정을 있는 역할을 완수한 것은 가세이 연간(化政年間 : 1803~1830) 전후에 나타난 다수의 ‘농간(農間) 상인들이었다고 하였다(平野哲也, 「秩父絹の生産と流通に關する一考察」, 上同, 61~73).

¹⁵⁾ 船杉力修, 「秩父大宮における町の展開と機能-秩父市中町を事例に-」, 上同, pp.17~33

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일본 도시사 학계가 1980년대 이후 주로 도시 내부 구조에 집중하고 외부 영향을 배제하는 연구 풍토가 있었던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전후 도시 역사학에서 주민들이 억눌리고 폐쇄적이라는 고정 관념을 바꾸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주민의 자율 및 자치를 강조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이카타마치를 막부와 번의 지배적 측면을 제외하고 자율성만 가진 집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막부와 번의 지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이상, 주민들의 자치 및 자율성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이카타마치도 막부와 번의 지배를 받고 성립·발전하였으므로 ‘지배’와 ‘자율’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마치의 자율적 측면뿐만 아니라 막부의 영향과 번의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지치부 군 오미야 향을 연구할 때에도 오미야 향을 지배하고 있던 오시 번이 이 지역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편, 와타나베 다카시(渡邊尙志)도 위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그는 그동안 지역사회론에 관한 연구에서 오쇼야(大庄屋)·쇼야(庄屋) 등 정치적 중간층을 중심으로 지역상이 묘사된 결과, 번주·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사회 연구는 번주 지배를 상대화한 자치적 영역의 발견이라는 문제 의식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영주와 주민, 나아가 호농층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주와 주민은 항상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양자가 협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다.¹⁶⁾

요시다 노부유키도 도시를 분석할 때 기초 집단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막부나 다이묘 등의 영주 권력과 조정의 권위에 해당하는 ‘국가적 권력’의 작용도 분석하여,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권력 이외에도 복잡하게 분절되어 있는 사회를 통합하는 재지 사회의 호농과 도시의 호상과 같은 일부 유력자들에 해당하는 ‘사회적 권력’도 사회를 통합·지배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시다는 이 중에서 주로 ‘사회적 권력’을 검토하였다.¹⁷⁾

본 연구는 자이카타마치의 발전에서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국가적 권력’, 즉 막부의 영향과 번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이와

¹⁶⁾ 渡邊尙志 編, 『近世地域社會論-幕領天草の大庄屋・地役人と百姓相續』, 岩田書院, 2007

¹⁷⁾ 吉田伸之, 『都市 江戸に生きる シリーズ 日本近世史 4』, 岩波書店, 2015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오시 번을 지배했던 여러 다이묘(大名)들 중 독자적인 번정(藩政)을 펼치기 시작했던 아베 씨가 지치부 령을 지배했던 시기(1663년(寬文3)~1823년(文化6))에 오미야 향이 자리카타마치로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오시 번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규명한다. 이를 위해 당시 오시 번의 정치·경제 정책과 지역 사회의 동향을 함께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 시각은 마치 내부 주민뿐만 아니라 지배자인 번과 번의 관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측면을 접근한다.

두 번째, 오시 번뿐만 아니라 막부의 정치·경제정책이 오미야 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에 대해 오시 번과 오미야 향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본다. 지치부 군 오미야 향은 관동 지방 무사시 국(武藏國)에 있는 자리카타마치이다. 관동 지방은 경제적으로는 당시 에도라는 일본 최대의 소비 도시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상품 생산의 발전이 중요했고, 교호 연간(享保年間 : 1716~1735) 이후가 되면 에도 시장과 깊게 결부되어 강한 영향을 받았다. 정치적으로는 관동의 약 반이 막부 직할지이고, 나머지는 다이묘의 영지(領地)로 막부령과 번령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다이묘들은 대부분 후다이다이묘(譜代大名)로 막부의 주요 역직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대개 관동 지방의 다이묘들은 번의 지배자이기보다는 막부 정책의 실천자·행정관으로서의 관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¹⁸⁾

오미야 향에 관한 연구 중 필자와 비슷한 시각에서 가키하라 겐이치(柿原謙一)가 두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¹⁹⁾ 두 논문은 오시 번의 역할을 주목한 점에서 본고의 문제의식과 유사하지만, 대개 사료를 소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첫 번째 논문은 간세이 개혁으로 금지된 오미야 향의 쓰케마쓰리(付祭)에 관한 사료와 지치부 견에 대한 전매 건의서를 소개한 후, 지치부 령 다이칸의 업적을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발굴된 사료가 많지 않아서인지 네다섯 편의 사료만을 이용하여 위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후에 발굴된 사료들을 보충해서 검토해야 한다.²⁰⁾ 두 번째 논문은 1781년(天明1)에 막부의 무사시 국(武藏國)·

¹⁸⁾ 本村礎・杉本敏夫 編, 『譜代藩政の展開と明治維新』, 文雅堂銀行研究社, 1963, pp.410~413

¹⁹⁾ 柿原謙一, 「忍藩秩父領代官市川儀右衛門と青木清右衛門」, 『武藏野史談』 3-1, 埼玉縣郷土文化會, 1956, pp.12~19 ; 柿原謙一, 「忍藩秩父領と田沼時代」, 『埼玉地方史』 24, 1989, pp.1~12

²⁰⁾ 가키하라 겐이치는 이후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柿原謙一 編, 埼玉新聞社, 1995, 이하 생략)을 편찬하였다. 이것은 에도 시대 초기부터 메이지 시기까지 지치부의 견직

고즈케 국(上野國)의 견(絹)·사(絲)·면(綿) 개회소(改會所) 설치에 관련된 오시 번 지치부 령의 사료들을 소개 및 분석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을 보다 정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베 씨 지배 시기에 오시 번이 오미야 향의 견시에 펼친 정책들과 약 20년 전에도 막부가 회소 설치를 시도했던 점 등을 총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고에서 주로 검토할 사료는 『忍藩割役名主御公用日記』와 『阿部家史料集 公餘錄』이다. 전자는 오미야 향의 대표적인 ‘마치(町)’의 자료로, 간분 연간(寛文年間 : 1661~1673)·겐로쿠 연간(元祿年間 : 1688~1704)부터 게이오 연간(慶應年間 : 1865~1868)에 이르기까지 오시 번 지치부 령 전역에 걸친 각 시대의 동향을 기록한 제1급 사료이다. 이 중에는 긴 시간 와리야쿠(割役)를 역임했던 마쓰모토 가(松本家)로부터 내려온 100여 책(冊)에 이르는 기록이 있다. 이전에는 이 사료에서 지치부의 생산 활동, 경제 상황에 관한 사료들이 주로 분석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오시 번과 관련된 사료들도 검토하였다.

후자는 겐나(元和)2년(1616)부터 메이지(明治)4년(1871)까지의 아베 가(阿部家)²¹⁾의 편년체로 된 변정사(藩政史)이다. 약 250년 간의 변정 전반이 편술되어 있는데, 특히 역대 번주와 번주 가족의 동향, 가신들의 근무 및 생활 실태가 기록되어 있다. 편자는 번사(藩士) 川澄五郎太夫次是로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초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次是가 근무하면서 모은 사료를 가지고 노년에 작성하였기 때문인지 ‘모노가시라(者頭)·반가시라(番頭)’의 기록은 많고 ‘고리부교(郡奉行)’와 ‘마치부교(町奉行)’ 등의 기록은 없다. 오미야 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지만, 후다이 번의 몇 개 안되는 통사 중 하나로 번주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임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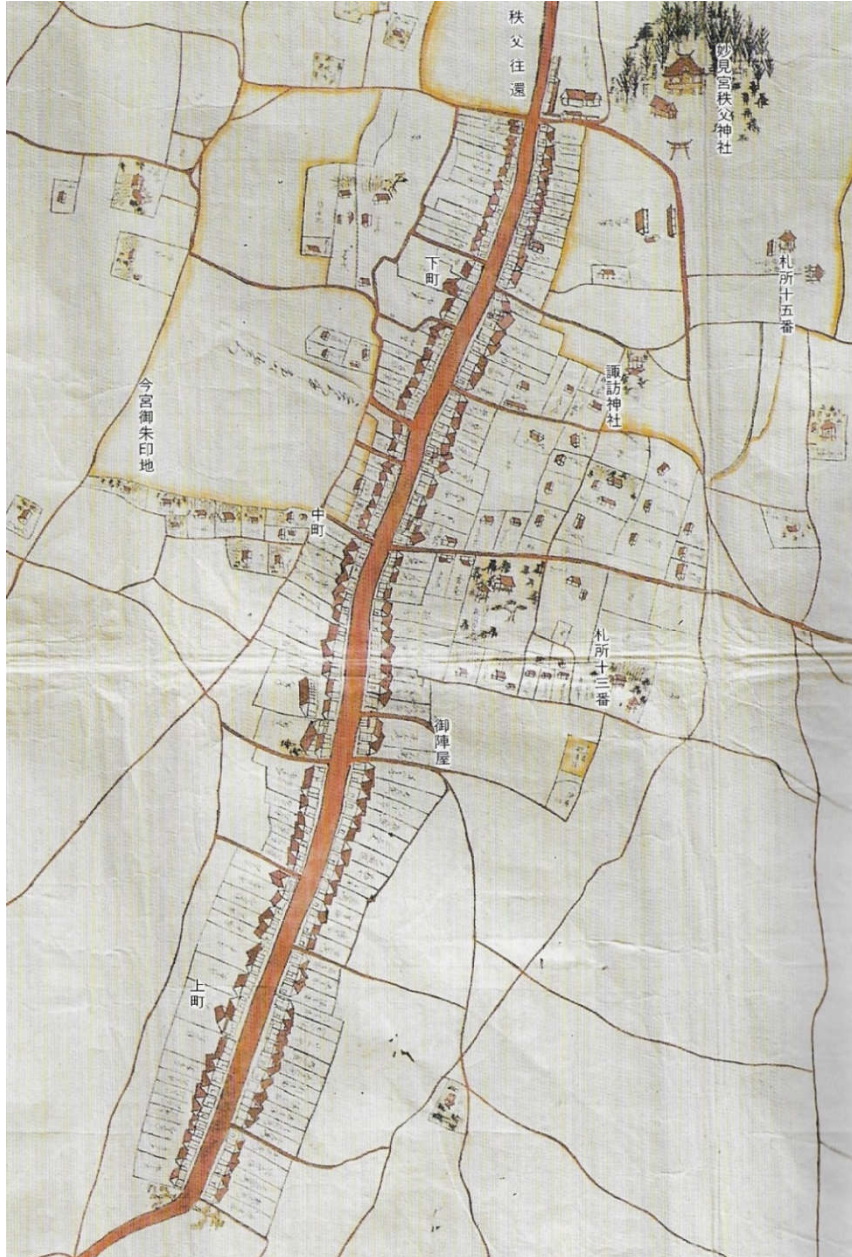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오시 번과 지치부 군 오미야 향의 견시와 제례에 대해 검토한다. 1절에서는 오시 번의 재정과 지치부 군 오미야 향에 대해 살펴보고, 2절에서는 오시 번이 오미야 향의 견시와 제례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을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18세기 후반 막부와 번의 정책이 오미야 향의 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물 및 생사와 관련된 사료를 원문 형태로 번각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료집을 통해 견직물과 관련된 사료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²¹⁾ 초대 번주는 아베 다다야키(阿部忠秋)이며, 종가 빈고 국(備後國) 후쿠야마 번(福山藩) 아베 가의 분가이다. 분가에서는 에도 막부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와 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 시절에 로주를 맡았던 아베 다다야키가, 종가에서는 막말 12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德川家慶) 시절에 로주를 맡았던 아베 마사히로(阿部正弘)가 유명하다.

다. 1절에서는 다누마 시대(田沼時代)에 오미야 향의 견시가 번성한 것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막부의 오미야 향 견시 회소 설치에 대한 오시 번의 대처를 다른 번과 대조해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19세기 초반 막부와 번의 정책이 오미야 향의 제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한다. 1절에서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의 간세이 개혁이 오미야 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막부에 의해 금지되었던 쓰케마쓰리의 재개 문제를 통해 오시 번청(藩廳)과 지치부 령 다이칸의 역할을 검토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오미야 향이 자이카타마치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막부 정책이 끼친 영향과 오시 번의 역할을 살펴본 후,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I. 忍藩斗 秩父郡 大宮郷의 絹市・祭禮



[그림 1] 大宮郷古繪圖(元祿 3 年(1690)), 天保 5 年(1835)사본, 시가지[町並]부분
 (출전) 『秩父市史(忍藩割役名主御公用日記)』 資料編 第一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1999)

근세 전기 지치부 군 오미야 향²²⁾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 일대를 그린 겐로쿠 시대(元祿時代: 1688~1704)의 그림[元祿古會圖[그림1]]이다. 이것을 참고하면, 오미야 향의 중심부에 시가지[町竝]를 따라 양쪽에 집들이 줄지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90년(元祿3)²³⁾에는 동쪽 70채, 서쪽 63채, 합계 133채의 집들이 빈틈없이 세워져 있었다.²⁴⁾ 시가지는 남동에서 북서를 가로지르는 직선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 북쪽에서부터 시타마치(下町)·나카마치(中町)·가미마치(上町) 이렇게 세 마치로 나누어져 있다. 이 세 마치를 ‘오미야마치(大宮町)’로 부르기도 했다. 현재 지치부 시의 시타마치부터 가미마치까지의 중심 시가지가 이 시기의 시가지와 일치한다. 주변에는 지치부 신사와 지치부이마미야 신사(秩父今宮神社) 등 종교 시설이 있고, 시가지 중앙부의 동쪽에는 오시 번의 진야(陣屋 : 관공서)가 있다. 이처럼 겐로쿠 연간이 되면 오미야 향에 도시 공간²⁵⁾이 형성된다.

본 장에서는 오시 번과 오미야 향의 견시와 제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시 번’은 에도 시대 250여 개가 넘는 번들 중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생소한 번이다. 따라서 1절에서는 우선 오시 번의 성립과 그 특징을 살펴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오시 번의 재정과 오미야 향을 검토한다. 2절에서는 18세기 초반에 오시 번이 오미야 향의 견시와 제례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과 1749년 오미야 향 나누시(名主)가 오시 번에

22) ‘오미야(大宮)’라는 명칭은 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한 지치부 신사에서 유래한다. 일본 어에서 미야(宮)는 신사를 의미하고, 오미야는 신사를 높인 말에 해당한다. 에도 막부의 직영사업으로 분카(文化)7~텐포(天保)1(1810~1830)에 편찬된 무사시국의 지지(地誌)인 『新編武藏風土記稿』에는 향명의 기원이 『延喜式』(헤이안 시대의 율령 시행 세칙)에 실린 ‘지치부 신사(知々父神社)’라고 되어 있다(『新編武藏風土記稿』卷之255 秩父郡卷之10 大宮郷(内務省地理局, 明17.6, 이하 생략), p.1).

한편, 오미야 향은 1889년(明治22)에 정촌제(町村制)의 시행으로 오미야마치(大宮町)로 변경되고, 1916년(大正5)에는 지치부마치(秩父町)로 개칭되고, 1950년(昭和25)에 시제(市制)의 시행에 의해 지치부시(秩父市)가 된다(寺阪昭信·平岡昭利·元木靖編, 『關東 II 地圖で讀む百年 埼玉・茨城・栃木・群馬』, 古今書院, 2003, p.35; 『埼玉縣の地名(日本歴史地名大系)』, 平凡社, 1993, p.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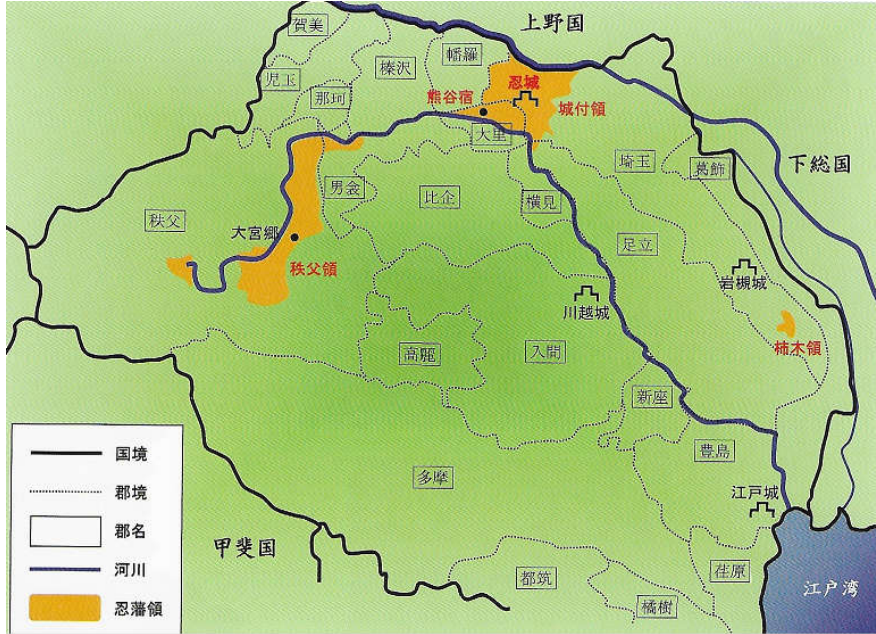
23) 본문에 나오는 연호(年號)는 모두 서기로 환산하여 표기하였고, 날짜는 음력 그대로 표기하였다.

24) 「解説」, 『秩父市史(忍藩割役名主御公用日記)』資料編 第三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2001, 이하 생략), p.12

25) ‘도시 공간’이라는 것은 도로와 가구(街區), 도시 시설과 시가지[町竝], 주거 등으로 구성된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생활이 펼쳐지는 ‘장(場)’인 인문적 또는 사회적인 공간이다. 다마이 데쓰오(玉井哲雄)는 ‘도시 공간’에는 크게 ‘도시 형태’와 ‘도시 경관’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도시 형태’는 지도 내지 평면도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도시 경관’은 도시 주변의 자연 경관을 비롯해 도시 외부에서 내부에 이르기까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高橋康夫·吉田伸之 編, 『日本都市史入門 I 空間』, 東京大學出版會, 1989, p.iv, p.131).

건의 전매를 건의한 일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미야 향이 자이카타마치로 발전해 가는 데 막부의 영향과 오시 번의 역할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1. 忍藩의 재정과 秩父郡 大宮郷



[지도1] 무사시 국의 오시번 령(1712년(正徳2) 시점)
(출전) 行田市郷土博物館 編, 『常設展示解説圖録 : 行田市郷土博物館』, 2014, p.28

오시 번은 에도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지도1] 참조) 막부의 방위를 위해 막각(幕閣)의 중추인 후다이(譜代) 또는 신관(親藩)이 배치되었다. 1590년(天正18) 8월,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관동에 들어오고 곧 가신들에게 봉토를 할당했다([표1] 참고). 이에야스는 오시 성(현 사이타마 현(埼玉縣) 교다 시(行田市))에 가신 마쓰다이라 이에타다(松平家忠)를 성주(城主)를 대신하는 ‘쥬다이(城代)’로 보내 성을 정비시킨 후, 1592년(文祿1)에 자신의 4남인 마쓰다이라 다다요시(松平忠吉)를 배치했다. 다다요시는 1600년(慶長5)에 오와리(尾張)로 전봉(轉封)되고, 오시 성은 막부령이 되었다. 그 후 1633년(寛永10) 5월에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가 로주로 임명되고 동시에 오시 번으로 이봉(移封)되었다. 그리고 1639년(寛永16)이 되면 로주 아베 다다아키(阿部忠秋)가 오시 번의 번주가 된다. 오시 번이 번으로서 정착해 독자적으로 번정(藩政)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베 씨의

지배 이후부터이다. 번의 조직과 지배 기구는 아베 씨의 시대에 정비되어 약 185년의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1823년(文政6)에 마쓰다이라 다다타카(松平忠堯)에게 계승된다.²⁶⁾ 마쓰다이라 씨의 지배는 메이지 유신 이후 폐번치현(廢藩置縣) 때까지 이어진다.²⁷⁾

아베 가(阿部家)는 초대 번주 다다아키를 포함해 대대로 6명²⁸⁾이 로주를 맡아, 에도 시대에 가장 많은 로주를 배출한 다이묘 가문이 된다. 아베 다다아키는 전 번주였던 마쓰다이라 노부쓰나와 마찬가지로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의 고쇼(小姓)²⁹⁾부터 시작하여 로주까지 승진한다. 다다아키 이후 마사요시(正能), 마사타케(正武), 마사타카(正喬)까지 로주를 맡았다. 그중에서도 마사타케(正武)는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23년간 로주를 지내고, 고쿠다카(石高 : 토지의 미곡 생산량)가 10만 석으로 증가되어 오시 성의 수축(修築)과 가신단의 규율 제정 등 번정(藩政)에 힘을 쏟았다. 마사타케 이후의 번주들도 로주·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³⁰⁾·오사카쥬다이(大坂城代)³¹⁾ 등 요직을 역임했다.

²⁶⁾ 1823년(文政6) 3월 24일에 막부가 삼방영지교체령(三方領知替)을 내려, 무쓰 국(陸奥國) 시라카와 번(白河藩) 번주 마쓰다이라 사다나가(松平定永)가 이세 국(伊勢國) 구와나(桑名)로, 구와나 번(桑名藩) 번주 마쓰다이라 다다타카(松平忠堯)가 무사시 국 오시로, 오시 번 번주 아베 마사노리(阿部正權)가 시라카와(白河)로 전봉되었다.

일반적으로 번을 교체하는 이유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인을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 오노 후미오(小野文雄)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아베 씨는 4대 번주까지는 모두 로주를 맡았지만, 교호 개혁 이후 인재 등용주의가 실시되자 전통적 지위가 무너졌다. 즉, 막부는 아베 씨를 반드시 오시에 둘 필요가 없어졌다. 1823년에 시라카와 번의 마쓰다이라 사다나가(松平定永)를 구와나 번으로 전봉한 것은 아마 은거했던 그의 아버지 마쓰다이라 라쿠오(松平樂翁 :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의 공적에 보답하기 위해서이고, 구와나에 있었던 마쓰다이라 다다타카가 오시로 전봉되었던 것은 그가 신편으로 아베 씨보다 쇼군에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小野文雄, 「忍藩」, 『新編物語藩史 第3卷』, pp.231~232).

²⁷⁾ 번이 국가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1) 10만 석 이상의 규모, 2) 한 가문의 장기간 영지 지배, 3) 경제적·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립 유지(박훈,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2014, pp.32~33).

오시 번의 경우 번주가 여러 번 바뀌어 ‘번주-가신단-영민’ 사이의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려워 국가적 성격을 갖기 어려운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번주는 주로 에도 초기에 자주 바뀌었고, 1639년부터 1823년까지 아베 씨가 오시 번을 장기간 지배하고 이후 딱 한 번 번주가 바뀌었다. 또한 오시 번의 고쿠다카(石高)는 10만 석이며, 재정을 스스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위 조건에 부합한다.

²⁸⁾ 오시 번에 있을 때 5명([표1] 참고)이, 시라카와 번(白河藩)으로 옮기고 나서 1명(아베 마사토(阿部正外) : 15대 번주)이 로주를 맡았다. 참고로 본가에서는 5명이 로주가 되어, 양가 총 11명의 로주가 배출됐다.

²⁹⁾ 고쇼(小姓)는 쇼군을 측근에서 모시며 잡무를 맡은 무사를 말한다.

³⁰⁾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는 교토의 치안 유지와 조정과 공가(公家)의 감시를 위해 설치한 에도 막부의 관직을 말한다.

³¹⁾ 오사카쥬다이(大坂城代)는 오사카를 통괄하는 에도 막부의 관직을 말한다.

[표1] 忍藩 歷代 藩主

近世初期의 藩主와 城番時代						
年度	年號	藩主	家格	石高	幕府役職	기타
1590	天正18	松平家忠	譜代	1万		松平(深溝). 藩主가 아닌 城代. 1592년 下總國 上代로 移封
1592	文祿1	松平忠吉	親藩	10万		松平(東條). 德川家康의 4男. 1600년 尾張國 尾張藩으로 移封
1600	慶長5	城番時代(幕府領)				1626년에 酒井忠勝(譜代, 老中)의 영지가 되지만, 실제로 오시 성에 들어왔는지는 확인 불가. 이후 다시 幕府領.
忍藩時代						
年度	年號	藩主	家格	石高	幕府役職	기타
1633	寬永10	松平信綱	譜代	3万	老中	松平(大河内). 1639년 武藏國 川越藩으로 移封
1639	寬永16	阿部忠秋	譜代	5万	老中	로주 재임 : 1633년~1666년
1647	正保4			6万		
1663	寬文3			8万		
1671	寬文11	阿部正能		9万		
1673	延寶1	阿部正武	譜代		老中	1676년 사임
1677	延寶5					
1680	延寶8			8万	奏者番兼 寺社奉行	
1681	天和1					
1686	貞享3			9万	老中	
1694	元祿7					
1704	寶永1	阿部正喬				가독 상속 전 奏者番, 寺社奉行 겸임. 상속 후 사임
1711	正徳1	阿部正允	譜代	10万	老中	1717년 사임
1733	享保18					秩父郡 村 27개→22개
1748	寬延1					
1749	寬延2				奏者番	1759년 사임
1762	寶曆12				大坂城代	
1764	明和1				京都所司代	
1769	明和6				西丸老中	
1780	安永9				本丸老中	11월 24일 사망
1780	安永9					12월 27일 가독 상속
1781	天明1				阿部正敏	奏者番
1784	天明4	阿部正識	大坂城代			
1787	天明7					
1796	寬政8					
1798	寬政10	阿部正由			奏者番兼 寺社奉行	
1804	文化1	阿部正權	譜代	10万	大坂城代	
1806	文化3				京都所司代	
1808	文化5					1823년 陸奥國 白河藩으로 移封
1823	文政6	松平忠堯	親藩	10万		松平(奥平) 伊勢國 桑名藩에서 移封
1838	天保9	松平忠彦				
1841	天保12	松平忠國				
1863	文久3	松平忠誠				
1869	明治2	松平忠敬				
1871	明治4					廢藩置縣 이후 忍藩→忍縣

[출전] 『阿部家史料集 公餘錄』, 『國史大辭典』, 『常設展示解説圖録 : 行田市郷土博物館』, 『新訂寬政重修諸家譜』, 『新編物語藩史』第3卷, 『江戸時代全大名家事典』, 『日本歴史地名大系』, 『秩父市史』資料編 第1卷, 第3卷

번주가 대대로 막부 요직을 맡자, 에도 또는 교토와 오사카에서의 체재비 등 그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여 번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 에도 시대 막부와 각 번은 항상 재정이 어려웠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번의 주요 수입은 연공(年貢)으로 거두는 미곡이어서 번의 재정은 쌀값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는 쌀값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데 비해 그 밖에 상품 물가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현저했다. 오시 번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여기에 막부 역직 근무에 따른 번주의 경비까지 추가된 것이었다.

오시 번의 재정은 2대 번주 아베 마사요시(阿部正能)의 재임 시기(1671~1677)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阿部家史料集 公餘錄』(이하, 『公餘錄』) 1672년(寬文12) 6월 27일과 28일 조목을 보면, 마사요시(正能)·마사타케(正武) 부자가 어음[手形]에 도장[御裏判]을 찍고 에도의 환전상[兩替商] 가이호 한베(海保半兵衛)가 돈을 건네는 기록이 있다.³²⁾ 비록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돈이 필요했던 실정을 보여준다. 4대 번주 아베 마사타카(阿部正喬, 재임: 1704~1748)는 역대 번주 중에서도 가장 긴 45년간의 치세 중, 참근교대(參勤交代)³³⁾를 포함해 에도와 오시를 20회 왕복했다.³⁴⁾ 그중 1720년(享保5) 2월 말 에도에서 오시로 귀국할 때 1박 2일이 걸렸는데, 전체 인원 475명의 총 경비가 금 322냥(兩) 2주(朱)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⁵⁾

번의 재정난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지출 감소 정책과 수입 증대 정책이 있다. 전자에는 검약령과 가신들의 봉록 삭감이 있고, 후자에는 연공 증수, 화폐 개주 혹은 번찰(藩札) 발행, 상인에 대한 세금 징수, 전매제 실시 등이 있다.³⁶⁾ 오시 번도 우선 검약령 하달과 가신들의 봉록 삭감 등 지출 감소 정책을 실시했다. 3대 번주 아베 마사타케(阿部正武, 재임 :

32) 『阿部家史料集 公餘錄』上(兒玉幸多 校訂, 吉川弘文館, 1975, 이하 생략), pp.30~31
 33) 다이묘는 참근교대의 실시 이후 번저(藩邸)에 처자(妻子)를 두고, 에도와 번을 번갈아 머물러야 했다. 기본적으로는 1년 교대가 많지만, 대부분의 관동 다이묘는 반년 교대였다. 단, 로주는 쇼군을 보좌해 막부 정치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조부(定府) 즉, 에도에 상주해야 했다. 따라서 오시 번 번주 아베 가는 로주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중요한 정무가 없는 한 거의 오시 성에 체재하지 않았다. 한편, 아베 마사타카의 경우 1711년(正徳1)에서 1717년(享保2)까지 로주를 맡았다.
 34) 「解説」, 『秩父市史』資料編 第四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2002, 이하 생략), p.2
 35) 『阿部家史料集 公餘錄』上, pp.221~222
 36) 速水融 著, 조성원·정안기 譯,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혜안, 2006, pp.169~172

1677~1704)가 로주에 취임한 다음 해인 1682년(天和2) 3월에 우마마와리(馬廻 : 중상급 가신) 이상이 각자 봉록에서 조금씩 바치겠다고 결정하였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했는지 번은 가신들의 봉록을 빌려 쓰는 형식으로 감봉하였다.³⁷⁾ 그런데 바로 다음해 1683년(天和3) 5월 22일 오후 8시에 오시 성 니노마루야시키키(二の丸屋敷)에서 불이 나 망루[櫓]를 모두 소실했다. 9월 14일, 번은 가신들[家中]에게 검약을 명하고, 번사(藩士)나 처자의 의류, 무구류·인룡(印籠)³⁸⁾·긴차쿠(巾着)³⁹⁾ 등의 사치를 금했다.⁴⁰⁾ 아베 마사타카 시기에든 가신들의 봉록을 삭감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⁴¹⁾ 그러나 이러한 지출 감소 정책으로는 재정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수입 증대 정책을 꾀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치부 령 오미야 향은 오시 번에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다. 오미야 향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관동에 들어온 후부터 막부 직할령으로 편입되어 관동 군다이(關東郡代)⁴²⁾의 지배를 받았다. 그 후 1663년(寬文3)이 되면 오미야 향을 포함한 지치부 군 27개 무라(주로 아라카와(荒川)유역)들⁴³⁾이 오시 번 번주였던 아베 다다아키의 영지로 하사된다. 오시 번은 지치부 령이 오시 성에서 멀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미야 향에 진야(陣屋)⁴⁴⁾를 설치하고 다이칸(代官)⁴⁵⁾을 상주시켜 조세,

37) 『阿部家史料集 公餘錄』上, pp.55~57

38) 인룡(印籠)은 약 등을 넣어 허리에 차는 타원형의 작은 용기를 말한다.

39) 긴차쿠(巾着)는 돈·약·부적 등을 넣어 허리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를 말한다.

40) 上同, pp.63~66

41) 上同, p.206, p.258, p.287, p.340 참고.

42) 관동 군다이(關東郡代)는 관동에 있는 막부 직할령의 농정(農政)을 담당했던 지방관을 말한다.

43) 27개 무라는 아래 표와 같다.

秩父郡 忍藩領	秩父領	大宮郷, 横瀬村, 山田村, 枡谷村, 定峰村, 三澤村, 黒谷村, 大野原村, 下影森村, 上影森村, 浦山村, 上田野村, 白久村, 日野村, 別所村, 久那村, 寺尾村, 田村郷, 蒔田村, 小柱村, 堀切村
	鉢形領	井戸村, 岩田村, 風布村, 金尾村, 下田野村, 皆野村

이중 아라카와(荒川) 하류에 위치한 6개 무라(井戸·岩田·風布, 金尾, 下田野·皆野)는 인접한 아부스마 군(男衾郡) 하치가타(鉢形)에 있는 다이칸 진야의 지배 영역에 속해 ‘하치가타 령(鉢形領)’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지치부 령(秩父領)’이라고 한다. 즉 지치부 군은 크게 막부령과 오시 번령으로 분할되고, 오시 번령은 21개 무라의 지치부 령과 6개 무라의 하치가타 령으로 나뉜다. 지치부 령과 하치가타 령에 있는 진야에는 고리부교의 관할에 속한 다이칸이 파견되어 체재했다. 그리고 이중 5개 무라(밀줄 친 부분)는 1733년(享保18)에 막부령으로 반환[上知]되어, 지치부 령은 16개 무라가 된다. 이후 오시 번은 폐번치현까지 지치부 군에 총 22개 무라를 소유한다(『秩父市誌』(秩父市史編纂委員會, 秩父市, 1962, 이하 생략), pp.155~156 ; 「解説」, 『秩父市史』資料編 第一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1999, 이하 생략), p.7, 「解説」; 『秩父市史』資料編 第三卷, p.1).

44) 진야는 현 사이타마 현 지치부지방청사에 위치했는데, 그 설치 연대에 대해서는 불분

행정, 경찰 업무 등을 맡겼다. 다이칸과 나누시(名主)⁴⁶⁾의 사이에는 와리야쿠(割役)⁴⁷⁾로 칭하는 역직을 만들었다. 진야에는 다이칸을 보좌하기 위한 데다이(手代)·추겐(中間)·아시가루(足輕)가 근무하고 있었고, 야마와리슈(山廻衆)라고 불리는 산림을 순찰하는 관리가 가끔 체류했다. 이와 같이 오미야 향에 진야가 설치되고 다이칸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이곳이 오시 번 지치부 령의 행정 중심지였음을 의미한다.⁴⁸⁾

명하다.

⁴⁵⁾ 다이칸은 항상 두 명 이상 임명되었고,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비번인 다이칸은 오시 성으로 돌아갔다. 당번인 다이칸은 1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다. 특히 지치부 령에 일이 있을 때는 다이칸의 인원이 증가되었다. 다이칸은 고리부교(郡奉行)나 간조부교(勘定奉行)의 지휘를 받고, 지치부 령을 순회하며 민정(民政)을 담당하였다(『秩父市誌』, p.185).

⁴⁶⁾ 무라에는 번에서 임명한 나누시가 있다. 지치부 군은 막부 직할령, 번령 모두 한 개의 무라는 두 개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져, 각 조마다 나누시가 있었다. 오미야 향은 토지가 넓고 민가(民家)가 많았기 때문에 향 전체를 10조로 나누고 10명의 나누시가 각 조를 지배하였다(『新編武藏風土記稿』卷之255 秩父郡卷之10 大宮郷, p.1).

⁴⁷⁾ 와리야쿠(割役)는 지치부 령의 나누시를 통할하는 역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오쇼야(大庄屋)’로 불리는 무라야쿠닌(村役人)에 해당한다. 와리야쿠는 원래 ‘와리모토(割元)’로 불렸지만, 1714년(正徳4) 1월, 와리야쿠로 변경되었다(『秩父市史』資料編 第一卷, p.178). 당시 와리모토는 2인 1조로 연번교대제였는데, 1717년(享保2) 5월 이후에는 월번교대제로 바뀌었다(上同, p.265). 직무 내용은 크게 ‘지치부 령의 연공을 각 무라에 할당, 다이칸의 명령(觸・達)을 각 무라에 전달, 영내 민정의 지시와 다이칸에게 보고, 공사(公事) 수출입의 접수와 입회, 오미야 향 각 무라 나누시의 통할(統轄)’ 등으로 분류된다(「解説」, 上同, pp.8~10). 신분은 농민의 최상위층이지만, 번의 말단 관리의 역할을 했다.

⁴⁸⁾ 또한, 오미야 향은 성 아래에 있는 조카마치(城下町)도 아니고, 오시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카타마치였음에도 번주와 정치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1709년(寶永6)에 작성된 「秩父領百姓年中業覺」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치부 령에 사는 하쿠쇼(百姓)들의 생활 양식이 정리되어 있다. 이중 첫 조항에는 1월 2일 와리모토(割元=割役) 1명과 나누시 1명이 번주(殿様)에게 신년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忍藩秩父領割役松本家御用日記類抄』第一分冊(秩父市誌編纂委員會・秩父郷土研究會校定, 秩父市誌編纂委員會, 1960, 이하 생략) pp.1~3). 실제로 『忍藩割役名主御公用日記』를 보면 매년 정월에 와리야쿠와 나누시가 신년 인사를 하러 에도에 있는 오시 번저(藩邸)에 가는 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번주가 막부 요직에 임명되었을 때나 에도에서 오시성으로 왔을 때에 축하인사를 하러 에도나 오시성으로 가는 기록이 종종 보인다.

예를 들면 1787년(天明7) 5월 26일에 7대 번주 아베 마사쓰네(阿部正識)가 가리노 마쓰메(雁の間詰)가 되자, 6월 2일에 지치부 령은 전례대로 ‘恐悅祝惣代’를 파견하도록 명을 받는다. 6월 25일 이른 아침에 오미야 향 와리야쿠 마쓰모토 소타로(松本宗太郎) 1명과 다른 무라의 나누시 2명이 출발하여 26일 오후 2시에 에도에 도착한다. 그리고 7월 1일 정오에 번주 마사쓰네를 배알하였는데, ‘잘 왔다’라고 인사를 받고 요리와 술 등을 하사 받았다. 2일 오시로 가서 3일 오시 가신[忍家中]들을 차례로 방문하고, 4일 지치부로 돌아왔다. 9월 29일에는 마사쓰네가 처음으로 오시성에 온 것[御入部]을 축하하러 와리야쿠 마쓰모토 소타로와 上田野村 나누시 與三右衛門가 오시로 가서 10월 1일 가미야시키(上屋敷)에서 배면하였다(『阿部家史料集 公餘錄』 上, p.511, 『秩父市史』資料編 第九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2007), pp.345~346, pp.365~366, 『阿部家史料集 公餘錄』 上, p.513, 『秩父市史』資料編 第九卷, pp.394~345).

이처럼 번의 최말단 관리인 와리야쿠와 나누시가 매년 정기적으로 번주와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번주-가신단-영민의 사이에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치

오미야 향은 오시 번의 재정에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1663년(寬文3) 오시 번의 영지로 편입되자 번에 세금을 상납하기 시작했다.⁴⁹⁾ 이해 11월 15일에 작성된 「卯之年秩父領御物成可納割付之帳」⁵⁰⁾에서 오미야 향의 기록을 보면 총 고쿠다카(田畑의 전체 수확량)는 2,222석(石) 3말[斗] 8승(昇) 5홉[合]이고, 이것을 돈[永樂錢]으로 견적한 에이다카(永高)는 도합 476관(貫) 831문(文)이다.⁵¹⁾ 지치부 령 27개 무라 전체 연공 금액이 2,285관 489문이므로, 오미야 향이 상납한 금액은 지치부 령 납세액의 약 20%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도 시대의 연공은 주로 미납(米納) 즉 쌀로 거두었지만, 이곳은 쌀이 아닌 화폐로 납부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이 산간 지대로 밭이 논보다 약 4.6배 많아 연간 곡물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미납은 미가의 변동으로 재정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에 비해 금납은 그러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높은 비중의 연공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오미야 향은 번에 있어 중요한 영지였다.

오미야 향의 하쿠쇼(百姓)⁵²⁾들은 연공을 상납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소상품작물을 재배해 시장에서 환금하였다. 소상품작물로는 이 지역의 특산물인 견직물이 생산되었다. 이곳을 포함한 지치부 군 내에서 생산된 비단은 ‘지치부 견(秩父絹)’⁵³⁾이라고 부른다.

부 령 영민들에게는 번주의 ‘정치적 존재감’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박훈, 「‘名君’ 徳川齊昭의 對民활동과 그 의의: 地方役人 접촉과 巡村」, 『일본역사연구』 32, 2010, pp.127~155 참고).

⁴⁹⁾ 오미야 향이 오시 번령이 되기 전에 막부에 납부한 연공은 다음과 같다. 1624년(寬永1)의 「大宮郷年貢割付狀(寫)」(‘高野家文書, 「御立紙箱」, 秩父市立圖書館藏,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6)에는 ‘大宮村’의 연공이 영(永) 416관(貫) 174문(文), 막부가 작성한 무사시국의 향장(郷帳)인 『武藏田園簿』에는 ‘大宮町’의 고쿠다카가 2264석(石) 1말[斗] 5승(昇) 5홉[合], 금액으로는 영(永) 452관(貫) 831문(文)(『武藏田園簿』, p.212)으로 기록되어 있다.

⁵⁰⁾ 「松本家文書」, 秩父市立圖書館藏M・Ⅲ・1,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p.25~28

⁵¹⁾ 이외에도 우키야쿠(浮役) 영(永) 2관(貫) 846문(文), 임시(臨時) 영(永) 3관(貫) 200문(文)이 있다(上同, p.28).

⁵²⁾ 미즈모토 구니히코(水本邦彦)에 따르면, 에도 시대에 하쿠쇼(百姓)는 두 종류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무라에 거주하는 주민(宗門人別改帳, 家數人數改帳에 등록)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농경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전자는 거주 지역을, 후자는 직종이나 기능을 지표로 구분한다. 에도 시대의 하쿠쇼는 농업 종사자인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무라에 따라서는 상공업이나 임업, 어업 종사자도 포함하고 있었다(水本邦彦, 『村百姓たちの近世〈シリーズ日本近世史 2〉』, 岩波新書, 2015, p.10).

본고에서 ‘하쿠쇼’는 주로 오미야 향의 주민이면서,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상공업 종사자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⁵³⁾ 지치부 견은 본래 백견(白絹)이었기 때문에 에도에서 교토로 보내 얇은 남색[花色]으로 염색하거나, 백견 그대로 사용되었다. 대부분 의복이나 침구류의 안감으로 사용되었다(井上幸治, 『秩父事件 自由民權期の農民蜂起』, 中央公論社, 1997, p.6).

1709년(寶永6)의 「秩父領百姓年中業覺」⁵⁴⁾에는 1년 동안의 견직물 생산과 연공 상납에 관한 기록이 있다. 견직물 생산은 2월에는 양잠을 위한 기도[蠶祈禱]를 하고, 4월에는 알에서 깬 누에를 끌어 옮기고, 5월에는 누에치기를 하고, 6월에는 여자가 견사(絹絲)를 만들고, 7월에는 견사를 가지고 신견(新絹)을 만들었다. 가내수공업을 통해 양잠-제사-견직까지 일괄해 견을 생산하는 방식은 지치부 견의 특징⁵⁵⁾이다.

‘시(市)’는 지치부 견을 판매할 수 있는 오미야 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환금 장소였다. 오미야 향이 아직 막부 직할령이었던 시기, 세 마치의 시가지에는 1·6이 붙는 날에 육재시(六齋市 : 월 6회 :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가 세워졌다.⁵⁶⁾ 육재시는 각 시일(市日)에 정해진 시장[市庭]에서 열렸고, 이른 아침에는 견시가 열리고 이후에는 일반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하쿠쇼(百姓)들이 자신들이 만든 견을 가지고 와서 견매인(絹買人)과 거래한 후 그 수익으로 연공을 납부하고 생필품을 구매했다. 또한, 지치부 신사에서 2월 3일, 8월 23일, 11월 3~6일 등 연간 세 번의 신사(神事)가 열리는데, 이때 제시(祭市)가 세워졌다. 2월 3일 제시에는 견을 만드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견시는 없고, 8월 23일에는 평상시와 같은 견시가 세워지고, 11월 3~6일 제시에는 ‘견대시(絹大市)’가 세워졌다.⁵⁷⁾ 이 견대시에는 여러 지방에서 많은 상인들이 방문해 1년분의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쿠쇼들에게도 육재시 이외에 견을 환금할 수 있는 중요한 시였다.

이상으로 제1절에서는 오시 번의 재정과 지치부 군 오미야 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오시 번은 아베 씨가 지배하던 시기 대대로 번주들이 막

54) 『忍藩秩父領割役松本家御用日記類抄』 第一分冊, pp.1~3

55) 관동 지역에서 견직물 생산은 지역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교토 포목도 매상이 마무리 공정(練張染)을 해야 완성품이 되는 ‘생견’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사 시 국 서부와 고즈케 국 중부에서 농가 부업에 의해 생산되었다. 다른 하나는 교토 니시진으로부터 기술을 받아들여 마무리 공정을 포함한 분업을 통해 ‘고급 견직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류(桐生)가 대표적이다(林玲子, 「關東生絹の流通構造」, 『土地制度史學』 6-1, 1963, p55 ; 三井文庫 編, 『三井事業史 本篇』 第1卷, 三井文庫, 1980, p.432).

견직물이 주요 특산품인 오마마(大間々 : 현 群馬縣 山田郡 大間々町)와 그곳에서 서북쪽으로 약 6km 떨어져 있는 기류신마치(桐生新町 : 현 群馬縣 桐生市)에서는 양잠과 제사는 오마마, 견직은 기류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長谷川伸三, 「幕藩體制崩壞期における在郷町の動向-上州大間々町の場合-」, 『地方史研究』 14(4), 1964, pp.28~49).

56) 『新編埼玉縣史』 通史編 第3卷, p.678. 오미야 향에 시가 세워진 것을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95년(元祿8) ‘高野家文書, 「從村々願請取帳」(元祿八~同九年)’이다. 이 문서에 ‘十一日市’가 나오는데 바로 육재시이다(『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30).

57) ‘菅原一菟集文書(柿原謙一保管中), 『横瀨村誌』 資料編(3), p.524 加藤(嘉)文書, 昭和57年, 横瀨村發行’,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p.111~112

부 요직을 맡게 되었고, 그 경비는 번에서 부담하여 재정에 압박을 주었다. 이와 함께 잦은 화재, 쌀값의 변동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을 쌀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는 지치부 령은 오시 번의 중요한 현금 수입원이었다. 그중 오미야 향은 지치부 령 전체 27개 무라의 연공 금액에서 약 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오미야 향은 말이 논보다 4.6배나 많기 때문에 연공 상납과 생계를 위해 지치부 견을 주로 생산하였다. 하쿠쇼들은 2월부터 6월까지 양잠과 제사를 하고 7월부터 견을 짜기 시작해 육재시에서 오전에 열리는 견시와, 11월 3~6일에 열리는 견대시에서 환금을 하였다. 그 돈으로 7월부터 12월까지(10월 제외) 다섯 차례 연공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생필품을 구매하였다.

2. 大宮郷 絹市・祭禮에 대한 忍藩의 개입

18세기 초가 되면 일본에는 잠사업(蠶絲業)이 발전하게 되고, 교호 개혁(享保改革)⁵⁸⁾이 실시된다. 일본에서 생사(生絲)는 에도 시대 초기까지 중국과 조선에서 나가사키(長崎)로 수입한 것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18세기 초 나가사키 교역에 지불할 동전(銅錢)이 부족해져,⁵⁹⁾ 생사 수입이 감소하자 1713년(正徳3) 5월, 막부는 생사의 국산화 정책을 실시한다.⁶⁰⁾ 니시진(西陣)에서 와이토(和絲 : 일본산 생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양잠과 제사를 장려할 것을 명한 것이다. 이 정책으로 일본의 잠사업은 18세기 초에 발전하게 된다.

교호 연간(享保年間 : 1716~1736)에는 막부가 교호 개혁을 통해 상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동업 조합 등의 결성 금지를 풀고 상인에게 나카마(仲間) 조합의 결성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교토에 기반을 둔 포목 도매상[吳服問屋]이 에도에 진출해, 그곳의 지점[出店]을 통해 산지에서 직접 견을 매입하는 집하 형태가 주류가 되었다. 교호 연간 이후 에치고야(越後屋)・시로키야(白木屋)・다이마루야(大丸屋) 등의 에도 포

58) 교호 개혁의 핵심은 '통치 체제의 강화'와 '막부 재정의 재건'이었다. 이중 후자는 개혁 초기의 갓테가카리로주(勝手掛老中 : 재정 담당 로주)인 미즈노 다다유키(水野忠之)와 후기의 갓테가카리로주인 마쓰다이라 노리사토(松平乗邑)에 의해 전개되었다. 구체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조멘 법(定免法 : 일정기간 연공을 고정시키는 방법) 실시, 연공 증수, 신전 개발, 상인에게 나카마(仲間) 조합 결성 허용, 화폐 개혁 등이 있다.(大石學 編, 『享保改革と社會變容』, 吉川弘文館, 2003, pp.22~27 ; 速水融 著, 上同, pp.172~176)

59) 『新井白石全集』第三(今泉定介・市島謙吉 編, 東京 : 吉川半七, 1906), p.118, p.164, p.166 참고

60) '和絲増産國策制定', 『御觸書寛保集成』諸國商賣之部, pp.1014~1015

목 도매상들이 견매상인(絹買商人)에게 선급금을 주고 오미야마치의 견지에서 견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했다.⁶¹⁾ 이처럼 막부의 잠사업 장려와 견의 유통 구조 변화는 견의 수요를 급증하게 하고, 오미야 향의 견시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편, 오미야 향의 11월에 지치부 신사 동계 예대제(秩父神社冬季例大祭, 이하 상월대제(霜月大祭))⁶²⁾는 쓰케마쓰리(付祭)와 견대시(絹大市)가 함께 열리면서 오미야 향의 번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쓰케마쓰리는 대제를 화려하게 꾸미는 제례 행사이다. 호화찬란하게 장식한 야타이(屋台) 네 대와 가사보코(笠鉦) 두 대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야타이 위에서 연극(歌舞伎)을 상연하고 어린 아이들이 춤을 추었다. 오미야 향과 주변 무라의 주민들, 여러 지방의 상인들은 화려한 쓰케마쓰리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또한 견대시에는 에도·교토·오사카 등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 지치부 견을 구매하기 위해 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했다.

그렇다면 위 행사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앞에서 살펴본 1709년(寶永6)의 「秩父領百姓年中業覺」의 11월 조목에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묘켄 제례(妙見祭禮)에서 여러 지방[國々] 상인들이 들어와 매매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⁶³⁾ 대제와 견대시는 18세기 초부터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쓰케마쓰리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800년(寬政12)에 지치부 신사 신관[神主] 소노다 지쿠젠노카미(蘭田筑前守)가 1799년(寬政11)에 풍속통제령으로 금지된 ‘야타이 흥행

⁶¹⁾ 平野哲也, 上同, p.61

⁶²⁾ 사료에는 ‘상월대제(霜月大祭)’ 혹은 ‘부코 산 제례(武甲山祭禮)’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한편, 현재 일본 전국에 알려져 있는 ‘지치부 야제(秩父夜祭)’를 지역 주민들은 ‘겨울 마쓰리[冬まつり]’ 또는 ‘밤 마쓰리[夜まつり]’로 부르고 있다. 또한 도시에 가까이 있는 마을에서는 ‘묘켄마치(妙見まち)’, 북관동 일대의 양잠 농가에서는 ‘오카이크 마쓰리(お蠶まつり)’, 동북에서 관동 일대의 노점상은 ‘묘켄상의 대시(妙見さんの大市)’로 불려왔다. 이러한 통칭은 각각 이 마쓰리가 가진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정식으로서는 지치부 지방의 총진수(總鎮守)인 지치부 신사의 일년에 한 번 있는 대제이다(출처 : <http://www.chichibu-jinja.or.jp/yomatsuri/>, 접속일자 : 2018.10.30).

대제는 11월 3일에 시작한다. 지치부 신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신령(神領 : 신사의 영유지) 57석(石)의 기진(寄進 : 사원이나 신사 등에 토지나 금전을 기부)을 받고 나서 신사의 동남쪽 귀퉁이에 동조궁(東照宮 :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시는 신사)을 안치하고, 이것을 안치한 11월 3일을 대제를 지내는 날로 정했기 때문이다(埼玉縣秩父織維工業試験場 外編, 『秩父織物變遷史』, 埼玉縣秩父織維工業試験場外, 1960, pp.58~59). 현재는 12월 3일에 열리는데, 일본 3대 히키야마마쓰리(曳山祭)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3대 히키야마마쓰리는 교토의 기온마쓰리(祇園祭), 히다(飛騨)의 다카야마마쓰리(高山祭), 지치부의 예대제(例大祭)이다.

⁶³⁾ 『忍藩秩父領割役松本家御用日記類抄』第一分冊, pp.1~3

(屋台興行)’ 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서문에 “상월대제(霜月大祭)는 옛날부터 전해져 왔지만 제례 야타이는 간분 연중(寛文年中)경부터 시작했다”⁶⁴⁾라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간분 연간(寛文年間 : 1661~1673) 말로부터 약 130년 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약하다. 그런데 『上宮地關根家文書』⁶⁵⁾ 중 1745년(延享2)에 지치부마쓰리(秩父祭)의 기원을 설명한 문서에는 “당초 제례의 시작은 교호 연간(享保年間), [중략]⁶⁶⁾ 차례는 宮地・新田・中・下이고, 中村은 근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하략]”⁶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쓰케마쓰리는 교호 연간(1716~1736)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호 연간 말에서 9년 후의 기록이므로 앞의 청원서보다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8세기 초에 오시 번 번주는 아베 마사타카(阿部正喬, 재임 기간 : 1704~1733)였다. 그는 1711년(正徳1)부터 1717년(享保2)까지 잠시 로주를 맡았는데, 로주가 되기 바로 전해에 지치부 령을 순행하였다. 그리고 교호 연간에는 앞에서 봤듯이 지치부 상월대제에 쓰케마쓰리가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번의 개입으로 새로운 관습들이 만들어졌다. 우선, 번주가 지치부에 순행한 것을 살펴보겠다.

1710년(寶永7) 6월에 아베 마사타카는 지치부에서 약 12일 동안 순행을 하였다. 마사타카는 오미야 향에서 머물면서 지치부 곳곳을 둘러보고 민정(民情)을 살폈다. 이때의 상황을 당시 오미야 향 와리야쿠 마쓰모토 소베(松本惣兵衛)가 자세히 기록하였다.⁶⁸⁾ 마사타카는 15일에 출발하여 하치가타(鉢形)에서 일박을 하고, 16일에 지치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27일에 지치부에서 출발하여 마찬가지로 하치가타에서 일박을 하고 28일에 성에 돌아온다.

그는 지치부에 있는 동안 주로 여러 사찰에 가서 참배를 하였다. 또한,

64) ‘「茵田公用日記」, 秩父神社藏’,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99

65) 세키네 가문서(關根家文書 : 지치부 시 지정 유형 문화재)에서 세키네 가(關根家)는 1590년(天正18) 6월에 하치가타 성(鉢形城)이 함락되자, 세키네 마고자에몬(關根孫左衛門)이 이곳(현, 秩父市 上宮地町)으로 피해 도착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온 오래된 가문이다. 이 가문에서 전해져 오는 문서는 가장 오래된 간분(寛文) 5년(1665)의 고문서 외에, 에도 시대 행정에 관한 문서, 지치부 마쓰리(秩父祭)의 기원을 기록한 문서 등 에도 시대의 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방 자료이다.

(출처 : <http://www.city.chichibu.lg.jp/4223.html>, 접속일자 : 2018.10.30)

66) 직접 인용한 사료에서 ‘대괄호[]’ 안에 있는 한글은 필자가 서술한 것이다.

67) ‘秩父市立圖書館所藏, 關根家文書所收’, (船杉力修, 上同, p.21 재인용)

68) 市立圖書館所藏, 「松本文書」 M・1・134(『秩父市誌』, pp.159~165 재인용). 이외에도 『公餘錄』와 『忍藩割役名主御公用日記』에서도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다 (『公餘錄』, pp.174~175, 『秩父市史』資料編 第一卷, p.133).

지치부 신사에도 참배를 하고, 신관 소노다 지쿠젠(蘭田筑前)도 만났다. 이 중 신사에서 참배할 때의 기록은 다른 때보다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18일에 마사타카가 아침 식사 전에 몸을 깨끗이 하고 지치부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였는데, 이때 마사타카는 나가바카마(御長袴), 시중[御介添]들은 모두 아사가미시모(麻上下), 수행원들[御供廻り]은 하오리바카마(羽織袴)⁶⁹⁾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⁰⁾ 이것을 보면 지치부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지치부 령의 무라들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집에도 방문하였다. 또한, 강가에서 직접 낚시를 하거나 부코 산(武甲山)에 오르기도 하고, 나누시가 운영하는 요릿집[茶屋]에 가서 메밀 국수[御そば]를 먹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⁷¹⁾

이와 같이 번주가 자신의 성 아래에 있는 조카마치나 무라가 아닌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지의 자리카타마치나 무라들을 순행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번주가 순행을 하면서 사찰과 신사에 참배를 하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등의 행위는 오미야 향을 포함한 지치부 령의 주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번주의 존재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뒤에 설명하듯이 교호 연간에 상월대제와 관련된 새로운 관습이 만들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년 상월대제에 번주를 대신하는 관리인 ‘묘다이(名代)’ · ‘다이산(代參)’을 파견해 참배하는 관습이 교호 연간부터 시작되었다. 『忍藩割役名主御公用日記』(이하 『御用日記』) 1720년(享保5) 10월

⁶⁹⁾ 나가바카마(長袴), 아사가미시모(麻上下), 하오리바카마(羽織袴)는 에도 시대 무가의 예복이다. ‘가미시모’는 상의인 가타기누(肩衣: 어깨에서 등으로 걸쳐지는 소매 없는 예복)와 하의인 하카마(袴)가 같은 재질, 색, 문양으로 제작된 한 벌의 의복을 의미한다. 원래 마(麻)로 만들어서 아사가미시모로 불렸지만, 시기에 따라 목면이나 견직물로도 만들었다(각주 143번 참고). ‘나가바카마’는 옷자락을 길게 만들어 끌면서 걷는 형태의 하카마를 말한다. 가타기누에 나가바카마를 한 벌로 한 것을 ‘나가카미시모(長上下)’라고 하는데, 쇼군을 알현할 수 있는 하타모토(旗本) 이상의 예복이다. 이에 대해 가타기누에 옷자락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한바카마(半袴)’를 한 벌로 만든 ‘한카미시모(半上下)’는 쇼군을 알현할 수 없는 신분이 낮은 무사 또는 서민이 착용한 예복을 말한다.

하오리바카마(羽織袴)는 가문의 문장을 넣은 하오리와 하카마를 한 벌로 만든 것을 말한다. 가미시모의 다음가는 예복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착용되었다(北村哲郎 著, 李子淵 譯, 『日本服飾史』, 경춘사, 1999, pp.113~115, 小池三枝 外 著, 허은주 譯,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어문학사, 2005, pp.88~91).

⁷⁰⁾ 市立圖書館所藏, 「松本文書」 M・1・134(『秩父市誌』, p.160 재인용)

⁷¹⁾ 한편, 20일 조목에 사이젠지(西善寺)의 주지(住持)가 두부 조림(とうふ煮染)과 술을 올리면서 몇 해전에 전대 번주였던 아베 마사타케(阿部正武)가 왔을 때에도 올렸다고 말하였다(市立圖書館所藏, 「松本文書」 M・1・134(『秩父市誌』, p.162 재인용)). 이것을 통해 아베 마사타케가 지치부에 왔던 것을 추측할 수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말일(晦日)에 ‘히라카와 이치베(平川市兵衛)’와 ‘요시자와 히코로쿠(吉澤彦六)’가 ‘다이산’을 위해 지치부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⁷²⁾

‘다이산’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초견이다.⁷³⁾ 『公餘錄』에는 1723년(享保8) 10월 28일에 ‘오하타 겐고자에몬(太幡源五左衛門)’을 ‘묘다이’로 지치부 신사에 파견한 기록이 처음 보인다.⁷⁴⁾ ‘오하타 겐고자에몬’은 11월 2일, 즉 제례 전날에 ‘부코 산[明見山]’을 오르고 4일에 오시로 돌아간 기록을 『御用日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⁵⁾

1729년(享保14) 11월 7일에는 다른 곳에서 소매치기들이 견시에 오기 때문에 이후에는 오시 번에서 관리를 파견해 조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⁷⁶⁾ 이때부터 오시 번이 소매치기 단속을 위한 관리를 견대시에 파견해 치안을 유지하기 시작하였다.

1731년(享保16) 11월 6일에는 대체 때 열린 ‘견대시’에서 거래된 견의 합계 수량을 와리야쿠가 다이칸의 요청에 따라 보고한 최초의 기록이 보인다.⁷⁷⁾ 『御用日記』에는 견대시의 거래 수량 보고가 분세이 연간(文政年間：1818~1831)까지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해에 제출된 기록을 보면, 11월 3일~4일 2일간 견매인 10명이 매입한 수량은 합계 9894필이다. 이것을 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금 5800냥(1필에 0.5~0.6냥으로 계산)이다. 견대시에서 2일 동안 거래량이 약 10,000필이라는 것은 굉장한 양이다. 1779년(安永8)년 오미야 향에서 1년 동안 육재시에서 거래된 견의 수가 31,000필⁷⁸⁾이다. 이 수치를 보면 견대시에는 오미야 향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무라의 하쿠쇼들이 견을 가지고 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18세기 초에 상월대제라는 순수한 신앙적 관습에 새로운 관습들이 만들어졌다. 이후 18세기 후반에 상월대제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새로운 관습들이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⁷⁹⁾ 묘다이·다이산은 대

72) 『秩父市史』資料編 第一卷, p.659

73) 「解説」, 『秩父市史』資料編 第二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2000, 이하 생략), p.12

74) 『公餘錄』, p.248. ‘秩父武甲山妙見へ御名代太幡源五左衛門仰せつけられ候’

75) 『秩父市史』資料編 第二卷, pp.71~72

76) 『秩父市史』資料編 第二卷, p.440

77) 『秩父市史』資料編 第二卷, p.556

78) 31,000疋은 견 30,000疋, 태직(太織) 1,000疋을 합한 수량이다. 태직은 굵은 실을 써서 평직(平織)으로 짠 견직물을 말한다(『高野家文書』, 秩父市立圖書館藏T・9・6,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p.83~87).

79) 대표적으로, 1770년(明和7)의 사례(『秩父市史』資料編 第七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2005), 이하 생략), p.365; 『公餘錄』, p.452), 1771년(明和8)의 사례(『秩父市史』資料編 第七卷, p.455; 『公餘錄』, p.453), 1772년(安永1)의 사례(『秩父市史』

개 10월에 번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10월 말에서 11월 2일 사이에 관리들과 함께 지치부에 온다. 그리고 2일에 와리야쿠 또는 나누시의 집에서 다이칸과 그 외 관리들과 함께 야타이 공연을 관람한다. 3일에는 신사에 참배를 하고, 참배가 끝난 후에는 나누시와 구미가시라(組頭 : 나누시를 보좌하는 역) 등의 안내를 받아 관리들과 함께 견대시를 순시한다. 또는 다이칸이 관리들과 견대시를 순회하기도 한다. 묘다이·다이산은 4일에서 6일 사이에 오시로 돌아가고, 견대시가 끝나면 와리야쿠는 그 해 견대시의 거래량을 기록한다.

이러한 관습들은 모두 4대 번주 아베 마사타카(阿部正喬)의 재임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앞에서 살펴 본 마사타카의 지치부 순행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번⁸⁰⁾에서는 조카마치에 있는 번이 설정한 신사의 제례 의식을 통해 번주를 제례와 연결시켜 마치나 무라의 주민들이 섬기도록 하였다. 오시 번의 경우, 번주가 성에서 멀리 떨어진 지치부를 순행하고, 조카마치에 있는 번주 주최의 신사가 아닌 자리카타마치에 있는 지치부 신사에 매년 번주의 대리인을 파견하여 참배하고 견대시를 순시하고 제례 행사를 관람하는 행위는 조카마치나 성 주변의 무라보다 번의 정치적 개입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견대시의 거래량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오시 번의 재정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앞에서 봤듯이 막부에서 잠사업을 장려하고, 교호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도 오시 번이 오미야향에 개입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오시 번의 견시 개입의 일환으로, 전매제에 관한 문제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재정난을 겪고 있던 막부와 각 번은 그 대책으로 전매정책 강화와 특산물 생산의 장려를 통해 그 이익을 독점하였다. 전매제는 근세 초기부터 실시되었지만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8세기 중반부터이다. 전매제를 실시한 번은 전국 200여 번 중에 약 60여 번으로 동북 지역에서부터 규슈 지역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역에 걸쳐 있었다.⁸¹⁾ 전매제를 실시하기 위해 각 번은 전매기관을 설립하였는데, 그 명칭으로 통제 대상의 상품명을 붙인 지회소(紙會所), 목면회소

資料編 第七卷, pp.536~537) 등이 있다. 이 전후에도 비슷한 기록을 볼 수 있다.

⁸⁰⁾ 예를 들어 돗토리(鳥取)와 와카야마(和歌山) 동조궁(東照宮) 제례가 있는데, 번주에 의해 각 조카마치에 권청(勸請)된 제례이다. 이외에도 나고야(名古屋), 미토(水戸), 오카야마(岡山) 등에 동조궁 제례가 있다. 그 중 돗토리 제례의 특징은 번에서 가장 중요한 제례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번주가 신사를 보호했고, 제례 전야의 참배도 장엄하게 이루어졌다. 제례 당일에는 번의 여러 가신들이 참가하였다(久留島浩, 「祭禮の空間構造」, 『日本都市史入門 I 空間』, 東京大學出版會, 1989, p.112).

⁸¹⁾ 堀江保藏, 『國產獎勵と國產專賣』, 塙書房, 1963

(木棉會所) 등이 자주 사용되었다. 한편, 번 권력의 약체 등으로 인해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는 하지 못하고 세금[運上·冥加]을 징수하는 등 유통 규제에 그쳐있는 예도 많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근세 중기 이후 ‘회소(會所)’에 의한 거래도 광의의 전매 제도로 이해한다.⁸²⁾

오시 번에서는 1749년(寬延2)에 처음으로 나누시가 견의 전매를 청원했다. 1749년(寬延2) 7월, 오미야 향의 나누시 고로베(五郎兵衛)가 지치부 군 오미야마치를 포함한 7개 무라(大宮町, 小鹿野町, 吉田町, 渡瀬町, 野上, 安戸, 小川)에 견의 개회소(改會所)를 설치하는 견의서를 다이칸 무토 마타에몬(武藤又右衛門)과 요시자와 야헤에(吉澤弥兵衛)에게 제출했다.⁸³⁾

견의서에는 먼저 회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 7개 무라의 육재시에서 매매되는 견과 횡마(橫麻)⁸⁴⁾가 1년에 약 10만 필이 있는데, ‘척인(尺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판매자[賣方]의 손해가 매우 많다. 견 1필의 길이[長]는 5장(丈) 4척(尺) 폭(幅)은 9치[寸] 5분(分)⁸⁵⁾으로 이전부터 정해졌는데, 매매할 때 1필에 1치에서 3치가 부족하면 히다(鏝)⁸⁶⁾ 50문(文)씩, 3치에서 5치가 부족하면 100문씩 대금에서 공제한다. 육재시에서 견시는 오전 6시전부터 오전 8시 전후까지 열리는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우 바쁘다. 따라서 육재시 당일에 가격을 정하고 매입 대금을 지불할 때와 ‘척인(尺引)’을 해서 대금을 지불할 때에 분쟁이 많아 하쿠쇼(百姓)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 신사(神事) 제례 등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오미야 향에 와서 좌우 전후로 줄지어 매매하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많아 분실도 많이 있다.

고로베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하쿠쇼들이 고생하고 무라가 곤궁해지기 때문에 회소의 설치를 견의한 것이다. 그는 위 7개 무라에 회소를 한 개씩 설치하고, 그곳에서 견의 장척(丈尺)을 검사하고 주인(朱印)을 찍어 매매하게 하면 ‘척인’에 의한 분쟁이 없어 하쿠쇼들에게 큰 이익이 될

82) 吉永昭, 『近世の專賣制度』, 吉川弘文館, 1996, p.3 はしがき

83) 『秩父市史』資料編 第四卷, pp.293~295

84) 지치부에서는 견직물 외에 견사(絹絲)를 경사(經絲)로 마방사(麻紡絲)를 횡사(緯絲)로 한 ‘횡마(橫麻)’라는 가미시모지(袴地)를 생산해 에도의 하타모토(旗本), 다이묘(諸侯)에게 중용되었다(埼玉新聞社 編, 『秩父地方史研究必携2(近世)』, 埼玉新聞社, 1979, p.188),

85) 1分은 약 0.303cm, 1寸은 약 3.03cm, 1尺은 30.3cm, 1丈은 3.03m이다. 따라서 5丈 4尺은 약 16m, 9寸 5分은 약 29cm이다.

86) 히다(鏝)는 히다젠(鏝錢)으로도 불리는데, 중세 후기부터 근세에 걸쳐 유통된 전화(錢貨) 중 악전(惡錢)의 호칭이다.

것이라고 설명한다. 회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견과 횡마 1필에 소유자[持主]로부터 히다 12전씩 내도록 지시하면 된다고 하고, 이 제안을 허가해주면 매년 ‘명가금(冥嘉)’으로 20냥씩 5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상납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다만 오미야마치를 제외한 6개 무라는 막부령[御領所]이기 때문에 막부[公儀]에도 청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개 나누시인 고로베가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건의서에도 나와있듯이, 얼마 전에 나라(奈良), 군나이(郡内), 오메(青梅), 유키(結城) 등 네 곳에서 허가가 이루어져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위 건의에 대해 오미야 향을 비롯한 지치부 령 13개 무라(大宮郷, 久那村, 別所村, 三澤村, 枳谷村, 黒谷村, 大野原村, 横瀬村, 山田村, 定峰村, 下影森, 上影森村, 浦山村)의 나누시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원서 6통을 다이칸에게 제출했다.⁸⁷⁾ 무라들이 반대한 이유를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견과 횡마는 옛날부터 ‘장폭(丈幅)’의 규정이 있었고, 부족해도 상대매매(相對賣買)를 해와서 문제가 없다. 둘째, 무엇보다 육재시에서 견 매매는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시일(市日) 전에 한밤중까지 짜서 다음날 아침 시장에서 팔아 바로 연공을 상납하는 자가 많다. 그런데 회소까지 견과 횡마를 지참해 검사를 받고 매매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어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연공 상납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셋째, 견 1필에 대해 12전씩 내는 것은 하쿠쇼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무라들은 견 회소 설치를 반대하였다.

이곳의 견은 주로 농가의 부업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과 장척이 고르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로베의 제안대로 회소를 만들어 견을 검사해 공인을 한다면 그동안 ‘척인’ 제도로 인해 발생했던 시장 분규, 소매치기 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막부와 번으로부터 품질 관리 및 보증을 받는 등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견시가 오전에 약 두 시간 동안 열린다는 점이다. 하쿠쇼들은 회소에 가서 검사 및 공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열리는 견시에서 견을 판매하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공을 상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앞에서 언급한 이익보다 더 손해가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그들에게는 1필에 12전도 부담이 되었다. 또한, 견에

87) 『秩父市史』資料編 第四卷, pp.277~282

세금을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각지의 견시가 서로 경합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결국 오시 번은 무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매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상으로 본 절에서는 오미야 향의 견시와 제례에 오시 번이 개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시 번은 18세기 초에 번주가 지치부령을 순행하였고, 이후 교호 연간부터 오미야 향의 상월대제와 견대시에 관한 새로운 정책들을 펼쳤다. 이 시기부터 화려한 쓰케마쓰리가 흥행되기 시작하고, 번에서 번주의 대리인을 파견하였다. 또한, 견시의 소매치기 단속을 위해 관리를 파견하고, 와리야쿠에게 견대시의 거래량을 보고하게 하였다. 견대시는 오미야 향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막부의 생사 국산화 정책과 교호 개혁의 영향도 있었다. 또한, 오시 번은 1749년 오미야 향 나누시가 청원한 견회소의 설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견시를 보호하였다.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시 번은 재정이 어려워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미야 향의 상월대제와 견대시를 주시하고 개입했을 것이다. 이러한 번의 개입과 막부의 정책은 18세기 후반 오미야 향의 견시 번성에 밑거름이 된다.

II. 18세기 후반 幕府・忍藩의 정책과 大宮郷의 絹市

1. 田沼時代 大宮郷 絹市の 번성

다누마 오키쓰구(田沼意次)는 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의 치세에 로주가 되어 약 20년 동안 막부 정치를 담당했다. 이 시기를 다누마 시대(田沼時代 : 1767~1786)라고 부른다. 교호 개혁에서 연공 증수와 신전 개발 등을 통해 막부의 연공 수입은 증대했지만, 연공 미의 급증은 오히려 미가를 하락시켜 실질적인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 연공 증수라는 전통적인 수입 증대 방식은 이 시기 한계에 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연공 증수 이외에 증세를 위해 농가 부업을 장려하는 등 각 번에서는 국산 장려 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 각종 상품 작물의 재배가 보급되고, 동시에 도시에서는 신흥 상인이 농촌에서는 자이카타 상인이 대두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누마는 교호 개혁에 의해 재건된 막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로 크게 전환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상인들에게 일종의 동업 조합인 가부나카마(株仲間) 공인 및 확대, 상인들에 대한 영업세의 일종인 운상금(運上金)·명가금(冥加金)⁸⁸⁾ 징수, 전매 정책 실시 등이 있다. 다누마는 가부나카마에게 상품의 구입과 판매 독점권을 주는 대신 영업세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직접세 중심의 세제(稅制)에서 간접세를 도입한 점과 도시와 농촌에 동일한 조세 방식을 적용한 점에서 새로운 정책이었다.⁸⁹⁾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다누마 시대에 막부의 재정은 개선되었지만, 한편에서는 막부와 도시 상업 자본이 결탁하여 덴메이(天明) 건 소동을 초래하게 된다.

오시 번도 지출 감소 정책만으로는 재정을 확충하는 데 부족했기 때문에 동시에 수입 증대 정책을 폈다. 대표적인 정책은 역시 연공 증수였다. 그러나 1752년(寶曆2) 지치부 령 하쿠쇼들의 잇키(一揆 : 봉기)⁹⁰⁾ 이후로 연공 증수는 곤란해졌다. 이어서 실시한 것은 어용금 부과였다.

⁸⁸⁾ 운상금과 명가금은 각종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부과한 세금이다. 본래는 이러한 영업에 대한 과세 중, 일정 세율을 정해 납부하는 것을 운상이라고 하고, 이에 반해 정율 없이 막부나 번의 영업 특권 보호에 대한 헌금으로 금전을 납부하는 것을 명가라고 했다. 그러나 실질상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⁸⁹⁾ 大石學 編, 上同, pp.58~61, 津田秀夫, 『封建社會解體過程研究序說』, 塙書房, 1980, p.62

⁹⁰⁾ 1752년 잇키에 관해서는 『秩父市誌』, pp.300~304 참고.

『御用日記』에는 오미야 향에서 오시 번에 어용금을 상납하는 기록을 자주 볼 수 있다. 어용금은 무라 전체 혹은 무라 내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었는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한 후 이자를 더해 변제되는 일종의 번의 금융 장치였다. 초기에는 무라 전체나 비교적 부유했던 사원에서 많이 부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개인 부담금이 증가하였다. 간분 연간(元文年間 : 1736~1740)부터는 지치부령 각 무라의 나누시와 부유민들이 많이 부담하였다.⁹¹⁾ 즉 어용금은 당시의 조세체계에서 파악하지 않았던 상공업자나 금융업자에 대한 영업세 내지 소득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⁹²⁾ 번은 점차 어용금에 많이 의지하게 되고, 초기에는 원금과 이자의 변제가 지켜졌지만 나중에는 상금(上金 : 헌납)의 형태로 받고 이것을 포상하는 데 그치는 일이 많아졌다.

5대 번주 아베 마사치카(阿部正允)는 1748년(寬延1)에 가독(家督)을 상속한 이후 1780년(安永9)에 사망하기 전까지 소자반(奏者番 : 막부의 예식을 관리하는 역직)부터 오사카쥬다이(大坂城代),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 니시마루로주(西丸老中), 혼마루로주(本丸老中)까지 순차적으로 막부 역직을 맡았다.⁹³⁾ 1769년(明和6) 9월 22일, 마사치카가 오사카와 교토에서 근무할 때 경비가 많이 들어 향의 주민들에게 어용금의 일종인 ‘사이카쿠 금(才覺金)’ 등을 자주 통달했는데, 그때마다 어용금을 조달한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 와리야쿠들에게는 ‘요리(御料理)’, 구미가시라(組頭)들에게는 ‘안주[御吸物]·술(御酒)’을 하사하였다.⁹⁴⁾

1775년(安永4) 9월 4일에는 오시 번에서 아가씨[御姫様]의 혼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치부령으로부터 1,000냥을 차용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다음 날(5일) 와리야쿠들이 오미야마치로부터 출금시켜 제출하였다. 현금은 6일, 다이칸에 의해 에도 번저(藩邸)로 운반되었다.⁹⁵⁾ 12월 16일, 와리야쿠 마쓰모토 소자에몬(松本惣左衛門)과 다카노 시로자에몬(高野四郎左衛門)은 오시에서 이치닌부치(一人扶持)⁹⁶⁾씩 증

91) 18세기 초의 어용금에 관한 기록은 『秩父市史』의 「解説」에 있는 表3 ‘秩父領から上納された御用金に関する記録(寶永6年・1709~寬延2年・1749)’을 참고(「解説」, 『秩父市史』資料編 第四卷, pp.10~13).

92) 『秩父市誌』, pp.217~220

93) 『阿部家史料集 公餘錄』上 pp.376~377, p.388, p.443, p.447, p.451, p.465

94) 『秩父市史』資料編 第七卷, pp.236~237

95) 『秩父市史』資料編 第八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2006, 이하 생략), p.180

96) 이치닌부치(一人扶持)는 주군으로부터 자신에게 급여되는 봉록의 기준을 의미한다. 막부의 경우에는 1인 1일의 식량은 현미 약 5홉[合], 1개월 1말[斗] 5승(升)을 표준으로 하여, 1년분의 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봉록이 원칙이지만, 직봉(職俸) 또는 포상으로도 주었다.

가된 부치를 받았다.⁹⁷⁾ 다음 해 1776년(安永5) 3월 말에 오미야 향의 이헤이타(伊平太)는 니닌부치(二人扶持)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용금 [御勝手御入用金]’을 상납했기 때문이다.⁹⁸⁾

이처럼 18세기 후반에는 아베 마사치카가 번주 재위 기간 동안 막부 주요 역직들을 맡아 경비가 증가하면서 영민들에게 어용금을 자주 부과하고 이것을 조달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였다. 여기서 어용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이것은 당시 오미야 향의 상업이 번창했기 때문이다. 1774년(安永3) 7월, 오미야 향의 가미유이(髮結 : 이발사) 2명이 생계가 안정된 것에 감사하여 명가금을 내고 싶다고 신청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공하옵니다만 문서로 청원드립니다.

하나, 5년 이전 인년(寅年 : 明和7)⁹⁹⁾까지 [다른 곳에서] 동직자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와 [영업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와리야쿠들께 청원하였더니 필요한 조사와 단속을 분부하셨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불이 날 때 고사쓰(御高札)를 [타지 않게] 소중히 하도록 분부를 받아 받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단속한 대로 동직자들의 [영업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도 없어졌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어위광(御威光)¹⁰⁰⁾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적지만 명가금(冥加金)으로 매년 전(錢) 2관[貫文]씩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치카타의 불[火]의 번소(番所) 수리[修復]를 위해 매년 전(錢) 1관[貫文]씩 와리야쿠고요반(割役御用番)에 올려 번소를 수리할 때 보태고 싶습니다. 황공하옵니다만 위의 일을 다이칸님께서 청원한대로 분부해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

오미야 향(大宮郷) 가미유이(髮結)

신청인[願人] 弥五兵衛

竹 七

안에이(安永)3 갑오(甲午) 7월

97) 『秩父市史』資料編 第八卷, p.191

98) 『秩父市史』資料編 第八卷, p.216

99) 괄호 안에서 ‘콜론(:)’ 다음에 있는 설명은 필자가 서술한 것이다. 이하 인용 사료에서도 동일하다.

100) ‘어위광’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무위(武威)로 파악되지만, 자비심과 같은 덕목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박수철, 「織田정권의 ‘武家神格化’와 天皇」, 『역사교육』 121, 역사교육연구회, 2012).

나누시 고로베님

위와 같이 청원 올린 대로 분부해주신다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누시 고로베

[다이칸] 金澤小兵衛様

小澤平左衛門様¹⁰¹⁾

위 사료를 보면, 5년 전까지 다른 곳의 가미유이들이 오미야 향에 많이 들어와 영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오미야 향에서 장사가 잘 되니 다른 곳의 가미유이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다. 오미야 향의 가미유이는 불만을 품고 5년 전에 와리야쿠에게 청원을 했고, 와리야쿠가 청원대로 단속을 하여 더 이상 외부의 가미유이들이 오지 않게 되었다. 가미유이는 위 사료에서 와리야쿠가 단속해주어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명가금을 내겠다고 청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9월에 와리야쿠가 구두로 답변한 것을 문서로 기록했는데, 그 서문에 “당향은 견(絹)·횡마(橫麻) 등을 구매하는 상인[買手商人]이 에도와 그밖에 여기저기서 들어온다. 게다가, 향중의 중개인[仲買人]들이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조석으로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미유이들의 생업이 좋아진다” 고 적혀있다.¹⁰²⁾ 즉, 와리야쿠는 여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미야 향에서 견을 구매하기 위해 와

¹⁰¹⁾ 乍恐以書付奉願上候

一當五年以前寅年迄私共同職之者夥數當所江入込ニ不埒之義度々有之候付御割役中江御願申上候得ハ一通リ御糺之上御ヰリヲ被仰付其上私共儀ハ出火之節御高札大切ニ仕候様被仰付奉畏候然ル所ニ御ヰリ之通リ相守リ同職之者不埒之義も無之偏ニ御威光と難有奉存候依之少分ニ而恐多ク奉存候得共爲冥加當年方錢貳貫文宛差上申度奉存候并町方火之番所爲修覆當年方年々錢壹貫文宛割役御用番迄差上置番所修覆之節御足シ合ニも仕度奉存候乍恐右之段御代官様江被仰上願之通リ被仰付被下候ハハ難有奉存候以上

大宮郷髮結
願人 弥五兵衛
竹 七

安永三甲午七月

名主 五郎兵衛殿

前書之者奉願上候通リ被仰付被下候ハハ私迄難有奉存候

名主 五郎兵衛殿

金澤小兵衛様

小澤平左衛門様

(「松本家文書」, 秩父市立圖書館藏M・1・18, M・1・19,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72)

¹⁰²⁾ 「松本家文書」, 秩父市立圖書館藏M・1・18,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72

서 자연스럽게 다른 상업들도 잘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그해 8월에는 오미야 향의 이치자에몬(市左衛門)의 동생 한시치(半七)가 ‘왕래길(往還端)·순례길(順禮道)’에 2년 전 찻집[茶屋]을 열어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점차 가게가 넓어져 지주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아 주택으로 삼고, 연공을 납부하여 ‘하쿠쇼(百姓)’가 되고 싶다고 청원하였다.¹⁰³⁾

이와 같이 18세기 후기에는 오미야 향의 견 생산과 거래가 왕성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다른 업종의 상인 및 직인들도 장사가 잘 되어 어용금[冥加金·運上金] 혹은 연공을 상납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번의 보호와 권리의 보장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번측에서도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의 상행위를 인정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와리야쿠가 말한 대로 당시 견시는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그 예로 먼저 견대시의 거래량을 들 수 있다. [표2]는 1731년(享保16)부터 1821년(文政4)까지 오미야 향 와리야쿠가 작성한 11월 견대시 거래량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1731년(享保16)의 거래량이 9,894필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후 호레키 연간(寶曆年間)과 메이와 연간(明和年間)에는 1년 평균 약 5,000필이 거래되었다. 그리고 안에이 연간(安永年間)에는 1년 평균 약 6,834필이 거래되었는데, 1731년(享保16)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 거래일도 11월 3일과 4일 이틀이었다가 1763년(寶曆13)부터 6일이 추가되어 사흘, 1765년(明和2)부터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로 연장되었다. 즉, 11월 견대시는 18세기 후반 특히 안에이 연간이 전성기였던 것을 알 수 있다.¹⁰⁴⁾

¹⁰³⁾ 『秩父市史』資料編 第八卷, p.120

¹⁰⁴⁾ [표2]을 보면, 1789년(寬政1)부터 갑자기 견대시의 거래량이 50% 미만으로 하락한다. 이 원인에 대하여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첫째, 겐로쿠 연간(元祿年間)부터 교호 연간(享保年間)까지는 지치부 견이 견대시에서 구매되는 경향이 강하고, 메이와 연간(明和年間)과 안에이 연간(安永年間)에는 육재시의 견시 거래도 번창하여 거래량이 견대시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약하고, 간세이(寬政) 이후에는 간세이 개혁 등의 영향을 받아 견대시의 거래량이 감소해 감과 동시에 토착 견상인의 힘이 강고해져 시 거래가 점포 거래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즉, 시의 기능의 변화에 따라 견대시의 거래량도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秩父市誌』, p.363) 두 번째, 간세이 개혁의 일환으로 풍속통제령이 내려져 지치부 신사 대제의 쓰케마쓰리에서 야타이 연극[屋台芝居] 상연이 간세이 11년(1799) 이후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타지역 상인들이 오지 않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秩父織物變遷史』, p.60) 두 설명 모두 간세이 연간 이후 간세이 개혁 또는 시(市)의 기능 변화 때문에 견대시의 거래량이 급락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표2]를 보면, 1781년(天明1)~1788년(天明8) 덴메이 연간의 기록이 부재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789년(寬政1)년의 거래량부터 급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덴메이 연간에는 자연재해(아사마 산(淺間山)의 대규모 화산이 폭발)로 인한 예도 시대 ‘4대 기근’ 중 하나인 덴메이 대기근(1783~1786)이 발생하였다. 이때 에도를 비롯

[표2] 大宮郷 絹大市の 거래량

年度	年號	市日	絹(疋)	絹竝横麻(疋)	代金(兩)
1731	享保16	11월 3·4일	9,894		
1741	寬保1	11월 3일	4,030		
1750	寬延3	11월 3·4일		6500	3,002
1756	寶曆6	11월 3·4일	4,500		2,700
1757	寶曆7	11월 3·4일	3,600		2,200
1758	寶曆8	不明	6,500		4,060
1759	寶曆9	11월 3·4일	6,570		3,400
1760	寶曆10	11월 3·4일	5,140		3,000
1761	寶曆11	11월 3·4일	4,200		2,400
1763	寶曆13	11월 3·4·6일	4,830		2,930
1764	明和1	11월 3·4·6일	3,970		2,440
1765	明和2	11월 3일~6일	4,368		2,390
1766	明和3	11월 3일~6일	5,290		3,592
1767	明和4	11월 3일~6일	5,110		3,492
1768	明和5	11월 3일~6일	6,735		4,454
1769	明和6	11월 3일~6일	4,397		2,962
1772	安永1	不明		7,414	4,784
1773	安永2	11월 3일~6일	7,000		4,580
1775	安永4	11월 3일~6일	6,154		3,842
1776	安永5	11월 3일~6일	5,345		3,324
1778	安永7	11월 3일~6일	7,955		5,354
1779	安永8	11월 3일~6일	6,922		4,538
1780	安永9	不明	7,053		4,888
1789	寬政 1	11월 3일~6일		3,270	2,392
1794	寬政6	11월 3일~6일		2,888	2,041
1800	寬政12	11월 3일~6일		3,332	2,287
1818	文政1	11월 3일~6일		2,326	1,507
1819	文政2	11월 3일~6일		2,617	1,711
1820	文政3	11월 3일~6일		2,901	1,905
1821	文政4	11월 3일~6일		2,327	1,504

* 『秩父市史』 資料編과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의 「大宮郷絹市取引疋數報告書」를 보고 표를 작성.
 * 「絹大市取引高表」(『秩父市誌』, p.361)와 「大宮郷絹大市取引高」(『秩父織物變遷史』, p.58)도 비교·참고.
 * 代金は 兩까지만 기록. 兩 이하 分과 朱는 생략.

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난 가운데 오미야 향에서도 우치코와시가 일어났다. 또한, 1782년(天明2) 3월부터 1786년(天明6) 2월까지 약 4년간 『御用日記』의 기록이 누락되어있다. 대기근으로 인해 자료가 소실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눈여겨볼 점이다. 따라서 덴메이 연간에 자연재해로 인해 거래량이 급락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표3] 1779년(安永8) 武州・上州 絹市(六齋市)의 거래량

國	郡	市	絹(疋)	絲(貫目)	太織(疋)	市日	支配關係
上州	群馬	高崎	30,000	無	1,000	5・10	高崎藩領
"	綠埜	藤岡	50,000	無	1,000	笛木町(1・6) 動堂町(4・9)	幕府領 (旗本領)
"	勢田	大間々	10,000	3	300	4・8	幕府領
"	山田	桐生	3,000	5,000	無	2・7, 3・8	幕府領 (旗本領)
武州	秩父	小鹿野	10,000	無	無	5・10	幕府領
"	秩父	吉田	10,000	無	無	2・7	幕府領
"	秩父	野上	2,000	無	無	3・7	幕府領
"	秩父	大宮	30,000	無	1,000	1・6	忍藩領

* 「武州上州反物絲眞綿取引量」(『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p.83~87) 중 일부 발췌

견대시뿐만 아니라 일반 견시(육재시)에서도 거래량은 상당했다. 『高野家文書』에는 1780년(安永9)에 1779년의 실적을 가지고 작성된 부슈(武州 : 무사시 국)와 조슈(上州 : 고즈케 국) 각지 견시의 1년간의 거래량이 기록되어 있다.¹⁰⁵⁾ 기록을 보면, 견시 47곳을 조사하였는데, 견과 태직의 총 거래량은 521,300필, 대금은 260,600냥(견 1필 대금 2분(分)으로 견적), 구전(口錢)은 13,300관[貫文, 1냥에 대해 전 50문(文) 견적]이었다. 이중에서 오미야 향이 조슈(上州) 미도노 군(綠埜郡) 후지오카(藤岡) 다음으로 조슈(上州) 군마 군(群馬郡) 다카사키(高崎)와 함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당연히 오미야 향의 거래량은 지치부 군 내에서 가장 많았다([표3] 참고). 지치부 견은 지치부 군 내에서 네 곳, 오시 번령의 오미야 향 및 막부령의 오가노(小鹿野 : 現 小鹿野町)・요시다(吉田 : 現 吉田町)・노가미(野上 : 現 長瀨町)의 견사에서 환금되었다. 이 네 곳의 총 거래량은 53,000필, 대금 26,500냥인데, 이 중 오미야 향은 견 30,000필, 태직 1,000필, 대금 15,500냥이었다. 오미야 향의 지치부 견 수입이 지치부 군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다누마 시대의 오미야 향의 견시의 번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오미야 향의 견대시의 거래량은 점점 증가하면서 18세기 후반, 특히 안에이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육재시의 견시도 이 시기 고즈케 국 및 무사시 국 47개 견시 안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거래량이 많았다. 견시가 번성하자 그와 함께 다른 상업들도 번영하였다. 상인 및 직인들은 자신들의 가게가 잘되자 번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받기 위해 세금을 내겠다고 자청하였다. 이처럼 18세기 후반에 오미야 향이 번성

¹⁰⁵⁾ 『高野家文書』, 秩父市立圖書館藏T・9・6',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p.83~87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상주의라는 당시 시대적 흐름도 영향을 주었다. 다누마 오키쓰구가 가부나카마 조직을 공인하거나 상인들에게 전매제의 특권을 주는 대신 세금을 징수하면서 상업은 명실공히 조세 부과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상행위를 천시해 왔던 전통적 관념은 바뀌게 되었다.¹⁰⁶⁾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미야 향은 견사와 그 외 상업들이 번성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오시 번도 재정 확보를 위해 오미야 향과 향내 부유민들에게 어용금을 자주 부과하고 어용금을 조달한 사람들을 포상하거나 영업세를 낸 자들을 보호하였다.

2. 幕府의 大宮郷 絹市 改會所 설치에 대한 忍藩의 대처

지치부 령 오미야 향의 견사 거래가 전성기였던 안에이 연간(安永年間: 1772~1780) 이후, 관동에서 큰 소동이 발생한다. 이것은 1781년(天明1)년에 막부가 내린 무사시 국(武藏國)·고즈케 국(上野國) 47개 시장에 제 피륙 및 사·면의 개회소[諸反物並絲綿貫目改所] 설치령이 원인이었다. 이 막부령에 대한 각 지역의 대처는 크게 고즈케 국 동부의 소송, 고즈케 국 서부의 견 잇키, 무사시 국 오시 번의 목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소동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견직물, 생사, 면 등에 세금을 걷으려는 막부와 생산판매자 하쿠쇼, 구매자 상인의 삼파전의 양상을 띠고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1759년 막부의 사견(絲絹) 회소 설치 시도와 흐름이 이어진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훑어보면서 당시 오시 번과 오미야 향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759년(寶曆9) 7월, 무사시 국 혼조 숙(本庄宿)¹⁰⁷⁾의 이자에몬(伊左衛門)과 臺川岸新五郎 두 명이 ‘사견(絲絹)의 회소(會所)’ 설치를 청원하였다.¹⁰⁸⁾ 그 내용에 따르면, 당시 시장에 ‘견숙(絹宿)’¹⁰⁹⁾을 세워

¹⁰⁶⁾ 速水融 著, 上同, p.177

¹⁰⁷⁾ 무사시국 고다마 군(兒玉郡)에 있으며, 막부령(前澤藤十郎御代官所)이었다(‘高野家文書, 秩父市立圖書館藏T・9・6’,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85).

¹⁰⁸⁾ 『桐生織物史』 上卷(桐生織物史編纂會 編, 桐生織物同業組合, 1935, 이하 생략), pp.174~175

¹⁰⁹⁾ 견숙(絹宿)이란 시장에서 소상인이나 농민이 지참한 견을 매입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카시마 아키라(中島明)는 견사의 구성을 크게 견숙, 소상인, 농민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견숙은 도시상업자본의 직숙 매입 기관이다. 둘째, 소상인(행상인·자리카타 상인)은 무라를 걸어다니며 견을 매입해 견숙에 가지고 간다. 그들은 농민과 견숙, 혹은 도시상업자본의 중개를 통해 차익금을 얻는다. 또한 그들 중에는 견숙으로부터 자금 공급을 받고 있는 자도 있고, 또는 농민에게 자금을 빌려 주고(前貸 형태) 있는 자도 있다. 그 자금량에 의해 견의 집하량은 물론 집하 범위도 결정된다.

거래를 했는데, 구매자들은 판매자들[賣方]이 연공을 충당하기 위해 견을 가지고 이곳밖에 올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견의 가격을 값싸게 매겼다. 게다가 견의 ‘길이[尺]’가 일정하지 않아 부족한 만큼 가격을 제하고, 대금 지불도 그날 밤 속에서 내는 등 구매자 위주의 거래였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판매자가 쇠하여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는 사람도 적어지고 점차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견숙을 폐지하고 고즈케 국과 무사시 국에 있는 21개소의 사견 시장에 사견 회소를 설치하자고 청원한 것이었다. 그리고 견 1필에 대해 전(錢) 4문(文)씩, 생사의 무게[絲目] 100돈[匁]에 대해 전 4문씩 ‘구전(口錢)’을 징수하고, 길이가 부족한 물품은 1치[寸]에 대해 24문을 제하고, 막부에는 ‘명가금(冥加金)’으로 매년 금 200냥(兩)씩을 상납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가격을 깎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는 견사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위 21개소 시장 안에는 오미야마치의 견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막부는 위 청원이 막부의 수입 증가라는 이익을 가져오므로 관계 지역의 의견을 조사한 후 허가하려고 했다. 따라서 관리를 파견하여 실상을 조사하게 했다. 11월 16일, 관동 군다이(關東郡代) 이나 한자에몬(伊奈半左衛門)이 오시 번 5대 번주 아베 마사치카(阿部正允)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2일 이시가야 빈고노카미(石谷備後守 : 간조부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부슈(武州) 고다마 군(兒玉郡) 혼조 숙(本庄宿) 이자에몬(伊左衛門), 동군 臺川岸新五郎이 부슈(武州) 조슈(上州)의 시장에서 매매하는 견과 사의 구전(口錢)을 청원한 것에 대해 지장 유무를 조사해야 하는 뜻을 통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시 번의 영지 지치부 군 오미야마치에 한자에몬(半左衛門)으로부터 관리(役人)가 와서 가부를 묻고 문서 등을 가져가는 일도 있을 것이니 오미야마치에 위의 일을 분부해주시길”¹¹⁰⁾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11월 18일, 오시 번 고리부교(郡奉行)가 오미야 향에 편지를 보냈다.¹¹¹⁾ 위 편지의 내용처럼 이나 한자에몬의 관리가 오미야마치에 와서 조사를 할 것이며, 이때 무례함이 없도록 와리야쿠 및 나누시들에게 특히 주의하도록 분부하고, 관리의 조사가 끝나면 오미야마치로부터

셋째, 농민은 가족노동의 소상품 생산의 성과인 견을 시장에서 판매한다. 이것은 공조 납입을 위하거나 단순 확대 재생산의 자금원도 된다(中島明, 「天明絹騒動とその周邊(4)」, 『群馬文化』132, 群馬縣地域文化研究協議會, 1972.5, pp.3~4).

¹¹⁰⁾ 『秩父市史』資料編 第五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2003, 이하 생략), p.609

¹¹¹⁾ 『秩父市史』資料編 第五卷, pp.608~609

제출하는 문서의 사본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와리야쿠들에게 분부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 12월 고즈케 국 야마다 군(山田郡) 오마마마치(大間々町)에서 견사 시장 쇠미를 이유로 반대하고, 다음 해 1760년(寶曆10) 3월 동국 동군 기류 령(桐生領) 무라들의 반대 소송 등에 의해 무산되었다.¹¹²⁾

그로부터 약 20년 뒤, 1780년(安永9) 5월에 오미야 향 나누시 누이에몬(縫右衛門)이 무사시 국과 고즈케 국의 시장에 견·사·면의 회소(會所)를 설치하고 싶다는 청원서를 오시 번 고리부교 앞으로 제출하였다.¹¹³⁾ 그 내용은 무사시 국과 고즈케 국에서 견·사·면을 매매할 때 매매 가격에서 부족한 척폭을 공제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회소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리고 도매상[問屋方]에게 견 매입금 1냥에 대해 전 48문, 생사의 무게 1관[貫目]에 대해 전 100문 면(綿) 1관[貫目]에 대해 전 48문을 거두고, 운상금(運上)으로 막부에 금 750냥, 번주에게 750냥 모두 1500냥을 매년 상납한다고 했다. 앞에서 본 1759년의 청원에서 막부에 1년에 금 200냥의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누이에몬은 판매자인 영세한 하쿠쇼[小前百姓]들에게는 약간의 운상금도 부담이 되지만, 도매상들은 여러 지방에 견을 판매하므로 그들에게 운상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쿠쇼가 아닌 도매상들에게 세금을 거두자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청원은 이루지지 않았다.

이 해 아베 마사치카(阿部正允)는 10월 20일에 발명하여 로주를 사임하고 11월 24일에 사망하였다.¹¹⁴⁾ 약 한 달 뒤 12월 27일에 아베 마사토시(阿部正敏)가 오시 번 6대 번주가 되었다. 그리고 이 해에 앞에서 소개한 무사시 국과 고즈케 국에 있는 47개 견사의 거래량이 『高野家文書』에 수록되었다. 이 기록은 바로 다음 해 발생한 제 피륙 및 사·면의 회소의 설립령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회소 설치, 검사료[改料], 어용금[運上金] 등을 결정하는 데 이용됐을 것이다. 가키하라 겐이치는 위 사본이 와리야쿠 다카노 가에 있다는 것은 ‘막각(幕閣)→오시 번 중역과 고리부교→지치부 령 다이칸→지치부 령 와리야쿠’를 경유하여 필사를 반복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¹¹⁵⁾

다음 해 1781년(天明1) 4월 21일, 아베 마사토시는 소자반(奏者番)

112) 『桐生織物史』上卷, pp.176~191 참고

113) ‘高野家文書, 「御立紙箱」, 秩父市立圖書館藏,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80

114) 『阿部家史料集 公餘錄』上, p.466

115) 柿原謙一, 上同, p.3

이 된다.¹¹⁶⁾ 그리고 6월 말에 막부는 무사시 국과 고즈케 국에 있는 견시 개최지 47개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공정한 거래 및 번영을 명목으로 3년 동안 10개소에 피륙·사·면 개최소(改會所)를 설치하고 검사료[改料]를 구매자[買主]로부터 징수한다고 통달하였다.¹¹⁷⁾ 이 계획은 조슈(上州) 미도노 군(綠野郡) 가나이무라(金井村) 나누시 한베에(半兵衛), 동군 신마치 숙(新町宿) 도이야(問屋) 겐자에몬(源左衛門), 동숙 혼진(本陣) 겐 나누시 고자에몬(五左衛門)이 간조부교에 청원한 것이었다.

이들은 앞에서 누이에몬이 청원한 것과 달리 근래 시장을 단속하지 않아 구매자들의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회소 설치를 요청하였다. 또한 여러 지방에서 매입하는 피륙[反物] 개수와 진면(眞綿) 무게, 가격 등을 조사해 장부에 기입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도장[印形]을 찍으면 각각 매입품[買請品]의 개수와 가격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구매자의 손실도 없게 된다고 하고, 피륙 1필에 대해 은 2분(分) 5리(厘), 사(絲) 100돈[目]에 대해 은 1분, 진면 1관[貫目]에 대해 은 5분씩 구매자로부터 검사료를 거둔다고 제안하였다.

위 계획은 간조부교 마쓰모토 히데모치(松本秀持)에게 청원하여 수리되었다. 당시 마쓰다이러 데루타카(松平輝高 : 다카사키 번(高崎藩) 번주)는 갓테가카리로주(勝手掛老中)¹¹⁸⁾로 막부 재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원자와 막부 사이에 마쓰다이러 데루타카가 개입하고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¹¹⁹⁾ 이때 오시 번 번주 아베 마사치카는 막부의 예식을 담당하는 소자반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에 관여할 수 없었다. 위 청원자 세 명 이외에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수십 명의 청원자가 있었다. 그 중에는 47개 견시(육재시) 중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후지오카(藤岡)의 관리들도 있었다. 또한, 다카사키 번의 어용 상인[御用達]을 맡고 있는 자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카사키 번 중역층과 연계해 위 청원을 막부에 촉구했다고 한다. 이것은 다누마 오키쓰구를 비롯한 당시 막각이 가부나카마를 공인하고 상인들에게 전매제 특권을 주는 대신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에 상응하는 형태였다.

¹¹⁶⁾ 『阿部家史料集 公餘錄』上, p.474

¹¹⁷⁾ 『徳川禁令考』前集第6(石井良助 校訂, 創文社, 1959, 이하 생략), pp.202~203

¹¹⁸⁾ 갓테가카리로주(勝手掛老中)는 에도 막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로주이다. 직무는 월번으로, 간조쇼(勘定所)를 비롯한 재정 관리에게 하달, 입면, 그들로부터 상신서를 받아 중요한 것의 금액이나 점검을 맡았다.

¹¹⁹⁾ 中島明, 「天明絹騷動とその周邊(2)」 『群馬文化』127, 群馬縣地域文化研究協議會, 1971.12, p.9 ; 上同, 「天明絹騷動とその周邊(3)」, 『群馬文化』129, 群馬縣地域文化研究協議會, 1972.2, p.8 참고

막부는 지난 1759년(寶曆9)의 사건(絲絹) 회소 설치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이번에는 관계 지역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바로 허가하였다. 7월 20일부터 피륙 등의 매입가[買高]를 조사할 것이며, 회소 설치 계획을 에도의 마치들, 그 외 막부령[國々御料], 사령(私領), 사사령(寺社領)의 자이마치(在町) 등에 빠짐없이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¹²⁰⁾

이번 회소 설치는 지난 1759년(寶曆9)의 회소 설치 계획과는 다른 점이 보인다. 바로 검사료 및 운상금 징수를 생산판매자인 하쿠쇼가 아닌 구매자인 상인에게 징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막부의 회소 설치 지시는 당연히 운상금을 상납하게 될 상인 측에게 충격을 주었다. 에치고야(越後屋)를 비롯한 에도의 고후쿠야나카마(吳服屋仲間)와 관동 도이야(關東問屋)들은 시장에서 불매를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일례로 7월 10일에 에도도이야교지(江戸問屋行事)와 고후쿠교지(吳服屋行事)가 기류 견(桐生絹) 가이나마카(買仲間)에게 보낸 선후책(善後策)에 관한 조회장(照會狀)이 14일에 도착했다.¹²¹⁾ 여기에는 막부가 회소 설치를 위해 조사를 시작하려고 한 당일 20일부터 잠시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통첩을 접수한 기류 견의 가이나카마는 총회를 열어 20일부터 시장, 자이카타 주변, 숙소 등 어떠한 곳을 불문하고 사건류(絲絹類)의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7월 21일부터는 오미야 향의 견시를 비롯한 주변 시장에서도 견, 횡마(橫麻), 사류(絲類)를 구매하는 상인이 나타나지 않아 거래가 정지되었다. 다음 달 8월, 지치부 령의 수많은 무라에서 “시장 거래가 중지되자 금전의 변통이 되지 않아 연공 상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위광으로 구매자(買方)인 상인들에게 분부하시어 시장 거래가 재개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의 청원서가 와리야쿠를 통해 다이칸에게 제출되었다.¹²²⁾ 기류 령과 마찬가지로 오미야 향의 견시 및 주변 시장에서도 상인들이 오지 않아 거래가 두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 청원서 내용 중에는 “ ‘제 피륙 장척 회소[諸反物丈尺改]’ 를 설치해 운상금을 취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買方] 상인이 오지 않는다는 풍문이 있다” 고 적혀있다. 즉, 오미야 향을 포함한 지치부 령 주민들은 회소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풍문’ 으로만 들었고, 막부의 지시는 전달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120) 『徳川禁令考』前集第6, p.203

121) 『桐生織物史』上卷, pp.216~222

122) 『秩父市史』資料編 第八卷, pp.476~477

무라 주민들이 풍문으로 들었다는 근거는 다음 사료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 축(丑 : 1781년) 8월 20일 지치부 령[御領分]의 무라들 나누시 1명 구미가시라 1명씩 진야에 불러 모아서 말을 한 내용은 지난번에 제 피륙 및 사 진면 관목 개회소[諸端物竝絲眞綿貫目改所]를 설치하고 싶다는 청원자[願人]가 있었다. 막부로부터 분부를 받은 서장이 오시 번에도 그때에 왔었지만 동석한 분[같이 평의한 자들]과 상담한 후에 분부를 하지 않으셨는지, 혹은 도노사마[아베 마사토시(阿部正敏)]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보류를 하셨는지 분부를 안하셨는데[밀줄 인용자], 이번에는 이 개회소[改所]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다는 서장이 왔다. 막부로부터 한 번 분부 받은 것에 대해 무라들에게 알아두도록 분부하니[하략]¹²³⁾

지치부 령 다이칸은 8월 20일에 지치부 령 내 무라의 나누시 1명, 구미가시라 1명씩을 진야에 불러 막부로부터 회소 설치령을 폐지한다는 서장이 왔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막부가 왜 폐지를 하였는지는 바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시 번 당국이 지난 6월에 막부가 회소를 설치한다는 지시를 내린 서장을 받았지만, 관리들과 평의하고 나서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혹은 번주 아베 마사토시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분부를 하지 않았는지 지치부 령에 막부의 명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즉, 오시 번 당국이 지치부 령에 막부의 명령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치부 령 무라들은 풍문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인지 제출한 청원서에도 갑자기 정지된 견시 거래의 재개를 요구할 뿐 회소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오미야 향과 달리 막부의 명령을 전달받은 고즈케 국의 동부와 서부의 무라들은 바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고즈케 국 동부에 있는 기류 령(桐生領)의 54개 무라 중 35개 무라의 대표 9명은 8월에 회소 설치를 반대하는 소송을 하였다.¹²⁴⁾ 이들은 이미 뽕나무[桑]에 대한 연

123) 一丑八月廿日御領分村々一村名主壺人組頭壺人宛御陣屋へ被召出被仰渡候は先達て諸端物竝絲眞綿貫目改所相建度願人在之 御公儀より被仰出候御書付此方様えも其節御渡有之候得共御同席様方御相談之上不被仰出候哉 殿様思召を以御指扣被遊候哉不被仰出候處此度右改所品々差障在之御免御書付御渡候 御公儀より一度被仰出候義ニ付村々ニ而承知致置候様被仰付[하략](『秩父市史』資料編 第八卷, p.478)

124) 『桐生織物史』上卷, pp.211~216

공, 어기견대영(御簾絹代永)¹²⁵⁾ 등 여러 세금을 상납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소를 설치하고 운상금을 제출하는 것은 첩첩산중으로 기류 령의 상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또한, “7월 23, 24일부터 먼 지역으로부터 상인들이 전혀 오지 않아 견사(絹絲)의 상업이 지극히 어려워졌다”는 내용도 있는데, 바로 기류 견(桐生絹) 가이나카마의 불매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쿠쇼들은 상인들에게 검사료를 징수하면 그 여파로 상인들이 판매 가격을 턱없이 깎을까봐 걱정했을 것이다.

일례로 하쿠쇼들이 “이번에 세금(運上)을 구매자[買人]에게 걷는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는 모두 주관을 두드리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買物]만 자연히 가격을 내리므로 결국 판매자[賣人]로부터 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영원히 여러 지역[國々]이 쇠미해진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¹²⁶⁾

고즈케 국 서부에서는 8월 초부터 회소 설치에 반대하는 하쿠쇼 수만 명이 이것을 청원한 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잇키를 일으켰다. 이들은 도미오카(富岡), 다카사키(高崎), 후지오카(藤岡) 이 세 지역 내에서 청원자를 비롯한 청원을 찬성한 자들의 집 100여 채 전후를 공격하였다. 그들은 나누시·도이야·다이칸·상인 등 촌락 지배자, 고리대 상층 하쿠쇼와 같은 존재였다. 이 소동의 절정은 하쿠쇼들이 청원자들과 결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로주 마쓰다이라 데루타카의 거성인 다카사키 성(高崎城) 아래에서 우치코와시(打壊し : 하쿠쇼 등이 부잣집을 부수는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¹²⁷⁾ 다카사키 번에서는 하쿠쇼들이 성 정문 앞까지 오자 실탄을 발포하여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하쿠쇼들은 이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하쿠쇼(百姓)에게 총을 쓴 것은 무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후에는 성에 불을 붙여 태워버린다”고 말하고 성을 포위할 정도의 세력이 모였다고 한다.¹²⁸⁾ 지치부 령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막부는 이와 같은 유혈 사태에 놀라 회소 설치령을 폐지하였다.¹²⁹⁾

오시 번은 왜 6월에 발포된 막부의 명을 지치부 령에 바로 전달하지 않고 회소 설치 폐지령이 내려진 후에 폐지를 말하면서 언급했을까? 아

125) 기류 령(桐生領) 54개 무라는 1600년(慶長5) 세키가하라 전투(關ヶ原の役) 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기견(簾絹)으로 백견(白絹) 2,410필을 헌상하였다. 이후 매년 ‘어길레이기견(御吉例御簾絹)’으로 견을 상납하였다(『桐生織物史』 上卷, p.212).

126) 三井文庫藏, 「證無番狀刺」(中島明, 「天明絹騒動とその周邊(2)」, p.2 재인용)

127) 『徳川實紀』第7編, pp.655~656, 8월 16일 조목 참고

128) 佐々木潤之介 編, 『日本民衆の歴史4 百姓一揆と打ちこわし』, 三省堂, 1974, p.262

129) 『徳川禁令考』前集第6, p.203

베 마사토시와 오시 번 중역들은 회소 설치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견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면 견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쿠쇼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다. 오시 번에게 지치부 령의 주민들에게 걷는 연공 및 어용금은 주요 재원 중 하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은 수락하지 않는 것이 번에게도 이로웠을 것이다. 즉, 오시 번은 오미야 향의 견시를 보호하기 위해 막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잠시지만 막부의 지시를 묵살하고 있는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대처는 이후 3장에서 살펴볼 지치부 신사 상월대제의 쓰케마쓰리 흥행 금지 사건 및 상인의 지치부 견 전매 견의에 대한 지치부 령 다이칸의 조치와 상통한다.

본 절에서는 막부가 내린 오미야 향 견시의 회소 설치령에 대한 오시 번의 대처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1749년에 이어 1780년에 오미야 향의 나누시가 오시 번에 무사시 국과 고즈케 국 견시장에 회소 설치를 건의했지만, 그때마다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무사시 국과 고즈케 국의 47개 견 시장에 회소를 설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막부는 오시 번에도 견 회소를 설치하겠다는 명을 내렸지만, 오시 번에서는 오미야 향에 막부의 명을 전달하지 않았다. 오미야 향에서는 풍문으로만 이러한 상황을 듣게 되고, 갑자기 견시에 상인들이 나타나지 않아 거래가 정지되자 오시 번 당국에 시장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때, 고즈케 국 서부에서는 하쿠쇼들이 회소 설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잇키를 일으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막부는 이러한 사태에 놀라 회소 설치를 폐지한다는 명을 내리고, 오시 번은 비로소 오미야 향에 막부가 이전에 회소를 설치하라는 명을 내렸던 것과 이번에 그것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전달하였다. 오시 번의 이러한 대처는 오미야 향에서 유혈 사태가 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오시 번이 오미야 향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막부의 명령을 묵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Ⅲ. 19세기 초반 幕府・忍藩의 정책과 大宮郷의 祭禮



[그림2] 文化・文政期の 大宮郷之繪圖

(출전) 『新編武藏風土記稿』 卷之255 秩父郡卷之10 大宮郷, p.3 (內務省地理局, 明17.6)

위 그림은 『新編武藏風土記稿』 권255 지치부 군 권10 오미야 향에 있는 ‘오미야마치’의 그림이다. 『新編武藏風土記稿』가 분카(文化7)~덴포(天保)1(1810~1830)에 편찬된 것이므로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 오미야마치는 19세기 초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그림을 보면, 오미야마치의 중심 시가지가 한층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본문 1장에 있는 겐로쿠 시대(1688~1704)의 그림[그림1]과 비교하면, 겐로쿠 시대에는 주로 중심 시가지에 집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백여 년이 지나면 중심 시가지 옆으로 거리가 생기고 그곳에 상점과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新編武藏風土記稿』에는 위 그림에 있는 집들이 250채이고, 그밖에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390채, 지치부 신사령 60채, 나머지는 동쪽에서부터 에타(穢多 : 백정) 21호, 가네우치(鉦打)¹³⁰⁾ 3호, 히닌(非人 : 천민) 1자(字 : 작은 집락)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¹³¹⁾

한편, 1810년(文化7)에 지치부 다이칸이 보낸 시장을 단속하는 후레가키에는, 1796년(寬政8) 3월에 세 마치의 관리들이 진야에 모여 정한

¹³⁰⁾ 가네우치(鉦打)는 시종(時宗)에 속한 반승반속(半僧半俗)을 말한다.

¹³¹⁾ 『新編武藏風土記稿』 卷之255 秩父郡卷之10 大宮郷, pp.1~2

규칙(掟)이 근년에 잘 지켜지지 않아 다시 잘 지켜지도록 경계하기 위해 본 후레가키가 내려졌다는 기록이 있다.¹³⁵⁾ 이 후레가키의 제1조에는 시장은 보통 집 안 등 실내에서 하는 가게[內見世]와 마당[庭]에서 하는 가게[外見世]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난히 번창하여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인이 모일 때에는 임시로 가게[中見世]를 세워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19세기 초반이 되면 오미야마치의 도시화가 더욱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도시화의 진전에 막부와 번은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 성격은 어땠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1. 寬政改革의 영향과 秩父郡 大宮郷의 付祭 금지

1787년(天明7) 6월에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가 로주에 취임하였다. 그가 취임 후 실시한 개혁이 바로 간세이 개혁(1789~1793)이다.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자서전 『宇下人言』에서 덴메이 대기근 이후의 상황에 대해 묘사하였다. “덴메이(天明) 우년(牛年 : 1786년(天明6)), 여러 지방[諸國]의 인별장을 조사했는데 이전 자년(子年 : 1780년(安永9))보다 여러 지방에서 140만 명이 감소했다. 감소된 사람들 모두가 사망한 것은 아니고, 단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거나[帳外], 또는 출가하여 수행자[山伏]가 되었거나, 또는 무숙인[無宿]이 되었거나, 또는 에도에 가서 인별장에도 기록되지 않고 방황하는 무리가 되고 말았다.”¹³⁶⁾ 약 7년 동안 1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인별장에서 감소될 만큼 대기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기근이 계속되자 이를 견디다 못한 민중들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책임을 지기 위해 다누마 오키쓰구가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취임했던 것이다.¹³⁷⁾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개혁의 기본 방향을 도시사회의 안정과 농촌경제의 회복으로 정하고, 이것을 위해 ‘검약령’과 ‘풍속통제령’을 자주 내렸다. 이 두 정책이 간세이 개혁의 모든 정책의 근간이었다.

그는 『宇下人言』에서 “옛날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데[治世] 첫 번째

¹³⁵⁾ 『忍藩秩父領割役高野家御用日記類抄』, p.78

¹³⁶⁾ 『宇下人言・修行錄』(松平定信 著, 岩波書店, 昭和17), p.114

¹³⁷⁾ 이 시기의 상황에 관해서는 박진한, 『일본근세의 서민지배와 검약의 정치』, 혜안, 2010, pp.201~206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第一]로 해야 하는 것은 사치[花奢]를 물리치고, 말단[末]을 억제하여 근본[本]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³⁸⁾ 여기서 말단을 억제하는 것은 사치를 금하는 것이고, 근본이 되는 것은 농업이다. 그는 사치를 악의 근원이라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농업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는 “무라에서도 이전에 없던 우산을 쓰고 기름을 발라 머리를 손질하는데 이것이 사치를 조장하고, 도박을 공공연히 하여 농사에 힘쓰는 무리[力田の輩]들이 줄어들어 생산물이 줄고 결국에는 고향[田里]을 떠나 에도로 가 에도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무라들은 쇠퇴해 간다. 그러므로 절용(節用)을 오로지 하여 귀농권본(歸農勸本)을 제일로 하고 부화(浮花)를 물리쳐야” 한다고 서술하였다.¹³⁹⁾ 사치 현상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확산되어 농촌을 쇠퇴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그 대책으로 ‘검약령’과 ‘풍속통제령’을 내렸던 것이다.

위 두 정책의 의도는 단순히 질소검약의 장려와 풍속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에도에서 고용 노동의 확보와 봉공인의 급료 인하, 나아가 귀농 장려와 깊게 관련되고 있다.¹⁴⁰⁾ 즉, 대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18세기 말부터 막부를 비롯한 제 번에서는 민정(民政)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세기 초가 되면 이른바 ‘명 다이칸(名代官)’으로 칭송받는 다이칸들이 다수 등장하였다.¹⁴¹⁾

1788년(天明8)년 11월 막부는 다이칸에게 훈령을 통해 농민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농촌이 쇠락해지고 있다며 그 대책으로 사치를 금하며 검약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⁴²⁾ 막부는 농민들이 사치하지 않도록 하려면 “모범을 보이기 위해 다이칸과 데다이(手代)”까지도 의복을 검약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또한, “농민이 부업[餘業]으로 상업 등을 하는 것과 무라에 이발소 등이 있는 것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

138) 『宇下人言・修行録』, p.112

139) 『宇下人言・修行録』, p.115

140) 다케우치 마코토(竹内誠)는 『宇下人言』에서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의 독특한 정책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검약령·풍속통제령을 시행하여 에도가 불경기가 되면, 에도의 영세한 상인 및 직인은 물론, 무숙(無宿) 노름꾼 등 방탕 무퇴한 무리도 생활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 무사와 마치의 봉공인이 되는 자가 많아지고, 또는 에도는 생활하기 어려우므로 농촌에 돌아가는 자가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에도에서는 봉공인의 급료가 인하되고, 무라에는 농업 종사자가 많아져 황지도 부흥해 생산력이 높아진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춰져 물가가 안정되고, 영주의 재정도 농민의 경영도 풍부해진다. 이렇게 사농(士農)이 번창하게 되면 저질로 공상(工商)도 그 여력을 받아, 결국은 불경기였던 에도의 마치들도 번영하게 된다(竹内誠, 『寛政改革の研究』, 吉川弘文館, 2009, p.252, p.256).

141) 藤田覺 編, 『近代の胎動』, 吉川弘文館, 2003, p.29, p.173

142) 『御觸書天保集成 下』 4641조, p.141

서 “이후부터는 사치스러운 일을 고치고, 부디 질소하게 생활하고 농업에 힘써야 한다” 고 하였다. 농민들이 상업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농업에 힘쓰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막부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다이칸들은 각자 관할 지역에서 사치스러운 풍속을 규제하고 검약령 등을 내린 후 황지의 재개발, 소아 양육금 제도, 농업용수의 보[堰] 수복, 다리 수리 등 농촌부흥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사회 정책들이 ‘인정(仁政)’으로 받아들여져 후에 ‘명 다이칸’으로 불리는 다이칸들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1793년(寬政5) 7월,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파면되었다. 그러나 그가 퇴직한 후에도 마쓰다이라 노부아키(松平信明)·혼다 다다카즈(本多忠壽)를 비롯한 사다노부파의 로주는 그대로 유임되어 간세이 개혁 정책을 계속 이어갔다.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의 간세이 개혁에 의한 정치 이념은 막말까지 막정의 기본으로 지켜져왔다. 그렇다면 간세이 개혁은 지치부 오미야 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1794년(寬政6) 7월, 오시 번 고리부교(郡奉行)에서 지치부의 다이칸과 와리야쿠를 통해 무라들에 후레가키를 내렸다.

[전략]

하나, 나누시들은 연시 축의[御祝儀] 및 문안 인사[恐悅御機嫌伺] 등으로 에도에 갈 때[出府], 혹은 오시 성에서 아사가미시모(麻上下)¹⁴³⁾를 착용할 때에는 태직류(太織類)를 착용해야 한다.

하나, 와리야쿠와 나누시들은 혼례와 제사[法事] 등의 때는 아사가미시모(麻上下)를 착용해도, 사사로운 일[私用]이므로 면복(綿服)을 입어야 한다.¹⁴⁴⁾

¹⁴³⁾ 가미시모(각주 69번 참조)의 옷감은 원래 마(麻)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문(龍門), 호박(琥珀), 능(綾), 정호(精好), 사(紗), 금란(金欄), 수자(繻子), 단자(緞子) 등 화려한 직물로도 만들었다. 그러나 1657년(明曆3)의 에도 대화재, 1661년(寬文1)의 교토 대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자 막부는 검약령을 내려 화려한 풍속을 제한하였다. 일례로 제다이묘와 막신(幕臣)에게 등성할 때에 목면(木棉)이나 마(麻)여도 지장이 없다는 시달(示達)을 내려 이후 간단한 가미시모도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서의 예복은 ‘黒の定紋付着物’으로 목면(木棉)에 문양(紋)을 붙였다. 에도 말기가 되면 지방의 농가에서 혼인 등에는 단자(緞子)·금(錦)으로 만든 가미시모를 입었다고도 한다. 한편, 가미시모에서 시모에 해당하는 하카마는 무사와 조년의 차이가 없었다. 하카마의 옷감은 목면(木棉)과 마(麻)부터 수자(繻子)·단자(緞子)와 다우(茶宇)와 같은 고급 옷감이 사용되었다(NHKデータ情報部 編, 『江戸事情 ヴィジュアル百科 第6巻. 服飾編』, 雄山閣出版, 1994, p.73 ; 北村哲郎 著, 李子淵 譯, 『日本服飾史』, 경춘사, 1999, pp.113~115 ; 菊地ひと美, 『江戸衣装圖鑑』, 東京堂出版, 2011, p.89 ; 金澤康隆, 『江戸服飾史』, 青蛙房; 新装版, 2016, p.59, p.216, p.218).

¹⁴⁴⁾ 혼례 장제(婚禮葬祭)에 관해서 1817년(文化14)에 무라들의 나누시 일동이 오시 번

하나, 하쿠쇼들은 이전에도 지시했고 이번에도 재차 지시한 대로 무슨 일이든 간에 면복을 착용하고 오비와 소맷부리[帶半袖口] 등에 이르기까지 견포(絹布)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무엇이든 처자의 의류는 위와 같이 따라야 한다.

그밖에 요즘 여자들이 외출할 때 청지(靑紙)로 만든 양산[日傘]을 쓰는 자가 많고 또한 신분[分限]에 맞지 않는 머리 장식[櫛笄銀之かんさし]을 하는 자가 있어 도리에 어긋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후략]

고리부교(郡奉行)

인7월(寅七月[간세이6년])¹⁴⁵⁾

막부에서 의복에 대해 검약을 지시했듯이, 오시 번에서도 위와 같이 와리야쿠, 나누시, 하쿠쇼의 의복과 여자들의 양산, 머리 장식 등을 제한하였다. 다음 해 1795년(寬政7) 1월 2일에는 연초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대표로 와리야쿠 다카노 시치에몬(高野七右衛門)과 우라야마(浦山)의 나누시 도에몬(藤右衛門)이 에도의 오시 번저로 출발하여 1월 16일에 지치부로 돌아왔다.¹⁴⁶⁾ 이들은 에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였는데, 그 중에 “5개년 검약을 분부하셨으므로, 간조쇼(勘定所)에서 지시를 받았다” 는 내용이 있었다. 1796년(寬政8) 10월 27일에는 오미야 향의

고리부교의 뜻에 따라 결정한 오보에가키(覺書)를 무라야쿠닌의 집에 각각 붙여 두어 준수하도록 했다. 그 조항 중에는 혼례 장제에 한해 의류는 손으로 짠 견직물[手織絹太織]을 입도록 허락하였다.(『秩父市誌』, p.198) 1817년(文化14)에는 사다노부 파로주 마쓰다이라 노부아키라(松平信明)가 사망하고, 다누마 과인 미즈노 다다아키라(水野忠成)가 로주가 된다. 본 사료는 1794년(寬政6)에 작성된 것으로 검약령으로 인해 견이 아닌 면으로 만든 아사가미시모를 입도록 하고, 1817년부터는 오시 번에서 혼례 장제에 한해서는 견직물을 입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추측된다.

- ¹⁴⁵⁾ 一、名主共儀年始御祝儀並恐悅御機嫌伺等ニ而出府之節或は忍表ニ而麻上下着用罷出候節太織類着用たるへし
一、割役名主共婚禮法事等之節ハ麻上下着用候とも私用之儀ニ付綿服可相用
一、百姓共は前々申渡此度も改而申渡候通何事ニよらず綿服用いたし帶半袖口等ニ至まで絹布無用たるへし
但、何茂妻子衣類右ニ准すべし
右之外近頃女子供外江出候節靑紙之日傘さし候もの數多有之並ニ分限不相應之櫛笄銀之かんさし差候もの有之不埒ニ候間堅無用たるべく候

[後略]

郡奉行

寅七月

(「高野文書・御領分村々江申渡覺」, 『秩父市誌』, p.198 재인용)

¹⁴⁶⁾ 『秩父市史』資料編 第十一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2011), p.290, p.293

주민 이치타로(市太郎)가 무라야쿠닌이 불러서 나갔는데, 지난 10월 10일 ‘야마마와리(御山廻)’가 순찰할 때 “부인[家内]이 신분에 맞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고, 빗[櫛]과 비녀[かんざし]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질책[御叱]을 받아야 한다고 명을 받았다.¹⁴⁷⁾ 이와 같이 간세이 시기에는 막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오시 번에서도 검약령을 내리고 영민을 단속하였다.

1799년(寬政11) 6월, 막부는 전국에 풍속통제령[風俗取締令]을 발포하였다.

세 부교(三奉行)에

곳곳에서 신사(神事) 제례(祭禮)를 할 때, 혹은 농작물[作物] 무시오쿠리(蟲送り)·가자마쓰리(風祭)¹⁴⁸⁾ 등으로 부르고, 연극 흥행과 같은 것을 열고, 의상 도구 등도 만들고, 구경꾼을 모아, 금전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위와 같은 일을 꾀하는 생업[渡世]을 하는 자는 물론, 그 밖에도 예의범절이 좋지 않은 행상인[旅商人], 혹은 가와라모노(河原者)¹⁴⁹⁾ 등은 결코 무라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유희·나약[遊興惰弱]하고 좋지 못한 일을 보고 배우고, 자연히 경작에도 게으름을 피우면서부터, 황무지가 많아지고 곤궁에 이르러, 마침내 그 결과는 이산(離散)의 토대가 되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일을 잘 분별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이후 유희(遊藝)·가부키(歌舞伎)·조루리(淨瑠璃)·춤[踊]의 종류 전부 연극과 같이 사람 모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이번에 위와 같이 알려진 후에도 만약 그만두지 않는다면 가차 없이 반드시 문책[咎]할 것이다.

[하략]¹⁵⁰⁾

¹⁴⁷⁾ 『秩父市史』資料編 第十一卷, p.339

¹⁴⁸⁾ 무시오쿠리(蟲送り)는 농작물의 해충을 몰아내는 주술 행사이고, 가자마쓰리(風祭)는 수확 전에 농작물이 태풍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게 바람을 진정시키고 풍년을 기원하는 마쓰리이다.

¹⁴⁹⁾ 가와라모노(河原者)는 거지, 천인, 연극 배우 등을 말한다.

¹⁵⁰⁾ 三奉行え

在々において神事祭禮之節、或ハ作物蟲送り風祭などノ名附、芝居見世物同様之事を催し、衣裳道具等をも拵、見物人をあつめ、金錢を費し候儀有之由相聞、不埒之事ニ候、右様之儀企渡世ニいたすものハ勿論、其外ニも風儀あしき旅商人、或ハ河原者など決て村々ニ立入せ中間敷候、遊興惰弱よからぬ事を見習、自然と耕作ニも怠り候よしして、荒地おほく、困窮ニ至、終ニ其果ハ離散之基ニも成候事ニ候間、右之次第を能辨候様可心掛候、依て今今以後遊藝歌舞伎淨瑠璃踊之類、惣て芝居同様之人集メ堅く制禁たるへく候、今度右之通相觸候上ニも、若不相止ニおいてハ、無用捨急度咎可有之者也、(『御觸書天保集成』下 風俗之部, p.439, 5536조)

막부는 위 풍속통제령에서 신사(神事), 제례를 할 때, 풍작을 기원하기 위한 마쓰리라는 명목으로 연극을 흥행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농민들이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유흥에 빠지게 되고, 농사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황무지가 많아지고 곤궁하게 되어 마침내 무라를 떠나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연극뿐만 아니라 유예, 가부키, 조루리, 오도리 등 예능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을 무라에 출입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할 것이라고 엄격하게 포고하였다. 이 포고는 곧 오시 번에 하달되었다. 오시 번의 고리부교는 7월 7일에 지치부 다이칸에게 통달하였다.

막부[公儀]에서 지시가 내려져, 이후 신규 제례 연극 흥행 등은 물론 수년 동안 해온 것도 반드시 중지해야 하는 뜻을 분부하신 일, 아베 진고자에몬님(阿部甚五左衛門殿)¹⁵¹⁾께서 전달해 주시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있다면 무라들에 무익한 비용이 들어 곤궁의 토대가 되는 일이어서 분부하시었으므로 그릇된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뜻을 무라들에 빠짐없이 전달해야 한다. 이상.

간세이(寛政)11년 미(未) 7월

고리부교(郡奉行)

지치부다이칸(秩父代官中)¹⁵²⁾

고리부교는 새롭게 열리는 연극은 물론이고 예전부터 해왔던 것도 중지해야 하는 막부의 명을 전하고, 이것을 각 무라에 모두 시달해야 한다고 지치부 다이칸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시 다이칸이었던 아오키 세이에몬(青木清右衛門)과 아라이 히코쿠로(新井彦九郎)는 10월 15일에 와리야쿠인 마쓰모토 소타로(松本宗太郎)과 다카노 시치에몬(高野七右衛門)에게 이전에 명을 받은 대로 오미야 향 지치부 신사[妙見宮] 상월대제

151) 오시 번 가로(家老)로 추정된다.

152) 右之趣從

公儀被仰出候ニ付以來新規祭禮芝居見せ物等之儀は勿論數年之仕來ニ而茂急度爲相止可申候旨被 仰出候段阿部甚五左衛門殿被仰渡候間右様之儀有之候而は村々無益之入用相掛困窮之基ニ相成候義ニ付被仰出候間心得違無之急度相守可申旨村々不洩様可ト申達候以上

寛政十一年未七月

郡奉行

秩父代官中

(寛政三年, 「園田公用日記」, 秩父神社藏,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98)

(霜月大祭)에서 쓰케마쓰리 흥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통달하였다.¹⁵³⁾ 쓰케마쓰리에서는 화려하게 장식한 야타이(屋台)와 가사보코(傘鉾)를 끌고 다니고 야타이 위에서 연극을 흥행하고 춤을 추는 것이 주요 행사였다. 그런데 막부의 풍속통제령에 의해 이 해부터 야타이를 장식하고 그 위에서 연극, 춤을 추는 것도 금지되었다. 다만, 가사보코는 예외로 허가되었다. 쓰케마쓰리는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이후 약 10년 동안 지치부 신사, 오미야마치 등에서 끊임없이 쓰케마쓰리의 재흥을 청원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다누마 시대 이후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로주가 되어 간세이 개혁을 펼친 것과 그 정책들이 오미야 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혼란스러웠던 당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검약령과 풍속통제령을 개혁의 근간으로 삼아 전국에 내렸다. 막부의 다이칸들도 각 지역에서 검약령과 풍속통제령을 내리고, 각종 정책을 통해 농촌을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인정(仁政)’으로 여겨져 훗날 이들 중 ‘명 다이칸’으로 불리게 된 자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풍속통제령으로 지치부 군 오미야 향 상월대제의 쓰케마쓰리가 금지된 이후 오미야 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오시 번 당국과 지치부 령 다이칸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2. 大宮郷의 付祭 재개에 대한 忍藩 秩父領 代官의 역할

지치부 신사의 상월대제에는 화려한 쓰케마쓰리와 견대시가 함께 열려 오미야 향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 그러나 1799년부터 쓰케마쓰리가 금지되면서 오미야 향의 경제는 위축된다. 본 절에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막부의 풍속통제령으로 쓰케마쓰리가 금지된 이후, 바로 다음 해부터 오미야 향의 사람들이 수차례 오시 번에 야타이 부활을 청원한 것과 이에 대해 지치부 령 다이칸과 오시 번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이다.

가장 먼저 보이는 기록은 1800년(寬政12) 7월 1일에 지치부 신사의 신관[妙見神主] 소노다 지쿠젠노카미(蘭田筑前守)가 지치부 다이칸 아라이 히코쿠로(新井彦九郎)와 아오키 세이에몬(青木清右衛門)에게 청원을 올린 문서이다.¹⁵⁴⁾ 신관은 글 서문에 “상월대제는 옛날부터 전해져 왔

¹⁵³⁾ 『忍藩秩父領割役松本家御用日記類抄』第三分冊, p.13

¹⁵⁴⁾ ‘寬政三年, 「蘭田公用日記」, 秩父神社藏’,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99

는데 야타이가 등장한 것은 ‘간분 연중(寛文年中)’ 경이고, 이때부터 쓰케마쓰리를 시작한 이후 매년 쉬지 않고 야타이를 흥행해왔다”고 소개하였다. 1장 2절에서 지적했듯이 ‘간분 연중’은 정확한 시기는 아니지만, 쓰케마쓰리를 포함한 지치부 신사의 상월대제가 유서 깊은 행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이것은 지치부 신사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오미야 향 전체에 큰 이익을 가져왔고, 이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제와 함께 열린 견대시에서는 특히 안에이 연간(1772~1780)에 4일 동안(11월 3일~6일) 적게는 5천 필에서 많게는 7천 필이 거래되어, 금 약 3천 냥에서 5천 냥이라는 막대한 수익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야타이 흥행이 중지되자, 신사에 참배(參詣)를 하는 자도 줄어들고 마치 안팎으로 쇠해져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오미야 향 사람들이 야타이를 다시 흥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신관도 동의하여 다이칸에게 문서로 청원한 것이다.

와리야쿠 다카노(高野) 일기 9월 26일 조목에는 다이칸 아라이 히코쿠로가 와리야쿠에게 제례에 관해 통고한 내용이 있다.¹⁵⁵⁾ 아라이 히코쿠로는 다카노에게 오시 동역(忍表同役方)¹⁵⁶⁾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오시 동역은 오시 번의 도시요리들(御年寄衆 : 다이묘 가의 로주)이 “오미야 향의 제례는 다른 제례와는 달리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춤[子供踊り]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만약 오미야마치(大宮町)에서 제례를 하고 싶다고 청원하려고 하면 ‘신관[神主]’이 청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다이칸은 다카노에게 오시 동역의 뜻대로 하라고 분부하되, 단 오시에서는 신관이 청원하라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마치[町方]에서 청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신관도 대강은 청원 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원할 때, 제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내력과 만일 제례가 없으면 마치가 쇠미해진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와리야쿠에게 내밀히 분부하였다. 다카노는 동역인 마쓰모토(松本)에게 다이칸의 명을 전달하고, 이 내용을 세 마치의 나누시와 구미가시라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을 보면 오시 번청에서 막부의 정책대로 쓰케마쓰리를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지치부

¹⁵⁵⁾ 『忍藩秩父領割役高野家御用日記類抄』, pp.49~50

¹⁵⁶⁾ 오시 동역(忍表同役方)은 오시의 다이칸으로 추정된다.

다이칸도 오시 번의 명령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신관뿐만 아니라 마치에서도 청원하도록 지시하고, 청원에 들어갈 내용도 자세하게 지도하고 있다. 즉, 오시 번청과 지치부 다이칸이 적극적으로 쓰케마쓰리가 재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이칸이 자세한 내용은 마치에서 청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은 쓰케마쓰리가 오미야 향 주민들의 생계 및 번 재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이칸으로부터 통고를 전달받은 뒤, 오미야 향의 가미마치(上町)·마야지(宮地)·시타고(下郷)·나카무라(中村)가 10월 1일에 문서로 야타이 어린이 춤[屋台子供おどり]을 하고 싶다고 청원했다.¹⁵⁷⁾ 청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오시 번에 보내졌다. 10월 10일 밤, 다이칸은 와리야쿠에게 상월대제에 대한 오시 번청의 동향이 담긴 편지 및 문서를 주었다.¹⁵⁸⁾ 그 내용에 따르면, 신관[社人]과 세 마치에서 제출한 청원서를 고요닌(御用人)¹⁵⁹⁾들에게 보내 의견을 구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마키노 옛추노카미(牧野越中守)¹⁶⁰⁾가 “막부의 지시대로 곳곳에서 어린이 교겐[子供狂言] 등을 하고 춤을 배우는[稽古踊] 것은 자연히 풍속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중지되었지만, 오래 전부터 해온 것은 지장 없지 않을까” 라고 부교쇼에 문의하였고, 7월에 간조부교 이시가와 사콘노쇼겐(石川左近將監 : 이시가와 다다후사(石川忠房))이 “이제까지 해 온 신사 제례(神事祭禮)의 때 영주에게 허가를 받은 연극 흥행[芝居見世物] 등은 기한[日限]이 있고 화려하지 않게 하는 것은 지장 없다” 고 답하였다. 이에 따라 오시 번에서는 상월대제를 할 때 신사 내 한 곳에서 인형극[人形芝居]을 하는 것은 지장 없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게 하면 괜찮다고 분부하였다. 오미야 향에서 원서를 제출하면 다이칸은 그것을 오시 번에 올리고, 오시 번에서는 막부에 문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형극은 허가되었지만, 야타이의 흥행은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157) 『秩父市史』資料編 第十一卷, pp.571~572

158) 『忍藩秩父領割役高野家御用日記類抄』, pp.50~51

159) 고요닌(御用人)은 다이묘 밑에서 재정을 비롯한 서무를 담당한 사람을 말한다.

160) 마키노 옛추노카미(牧野越中守)에 대해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의 편자 가키하라 겐이치(柿原謙一)는 전 로주라고 부기하였다. 필자는 『新訂寛政重修諸家譜』에서 ‘越中守’를 찾아보았고 그중에 히타치 국(常陸國) 가사마 번(笠間藩) 2대 번주 마키노 사다나카(牧野貞長)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키노 사다나카는 로주 재임 기간이 1784년(天明4)~1790년(寛政2)이지만, 1796년(寛政8) 9월 30일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 사료에 등장하기 어렵다. 한편, 그의 아들이자 가사마 번 3대 번주인 마키노 사다하루(牧野貞喜)도 옛추노카미이고, 1822년(文政5) 10월 17일에 사망하기 때문에 위 사료에 등장할 수 있지만, 로주에 재임한 적은 없다.

1801년(享和1) 9월 1일에 오미야 향의 ‘묘켄 제례 야타이교겐 교지 [妙見祭禮屋台狂言行司]’가 이전과 같이 야타이 어린이 춤[屋台子供踊]을 흥행하고 싶다고 원서 1통을 작성하고, 나누시들이 모두 도장을 찍어 제출하였다.¹⁶¹⁾ 그리고 11월에 지치부 신사 신관 소노다 지쿠젠노카미(藪田筑前守)가 작년에 이어 다시 야타이 부활을 요구하는 원서를 오시번 관청[御役所]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지치부 신사[當社] 제례의 일은 간분 연중(寛文年中)경부터 시작되어 야타이 4대를 꺼내 15세 이하의 아동이 매해 11월 2일부터 3일 밤까지 어린이 춤[子供踊] 교겐(狂言)을 쉬는 해 없이 계속 해왔는데, 지난 미년(末年 : 간세이11) 곳곳에서 제례를 중지하라는 뜻[이 내려져] 일동 포고[御觸]에 따라 오미야 향에서는 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야 향의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은 이곳의 제례는 옛날부터 이어져 왔고, 특히 도노사마의 묘다이가 참배하고, 또한 단속을 위한 야쿠닌들을 보내시니 정말로 가볍지 않은 일로 생각하므로 [중략] 지난해[간세이12]에 야타이를 하고 싶다고 청원했는데, 고반닌교(碁盤人形)는 지장 없다고 감사하게도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중략] 오미야 향 제례의 때에는 가까운 지방[近國]은 말할 것도 없고 가미카타(上方)까지도 듣고 여러 지방[國々]의 상인이 많이 모여서, 11월 1일경부터 동 11일경까지 체류합니다. 또한 참배하는 무리[群集]가 셀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광대한 신사(神事)이지만, 도노사마의 정도(政道)를 존중하여, 매년 아무 일도 없이 끝나 굉장히 분에 넘치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앞에서 말한 대로 일이 년 야타이를 완전히 쉬어서[大休] 잠시 참배하는 사람은 있더라도 반드시 체류하지는 않고, 자연히 상인 등은 이전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止宿] 제 잡용 등 특히 오미야 향 제일의 견장사도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 나가는 생업도 극히 어려움을 겪는 자가 많아 마음속으로 탄식합니다. [중략] 거듭 전례대로 야타이 춤[屋台踊]의 허가를 분부 내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치부 군 오미야 향(秩父郡大宮郷)

묘켄 신사(妙見神社)

신청인(願人) 소노다 지쿠젠노카미(藪田筑前守)

교호 원년(享和元年) 유년(酉年) 11월

영주님(御領主様)

¹⁶¹⁾ 『秩父市史』資料編 第十二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2013), p.4

관청[御役所]¹⁶²⁾

이번 청원서는 작년보다 양도 두 배 이상 많아지고, 내용도 상세해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월대제가 오시 번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등 중요한 제례라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신관은 번주를 대신하여 묘다이가 신사에 참배를 하고, 단속을 위해 관리들을 파견하기 때문에 대제가 가볍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참배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번주의 정치 방침(政道)을 존숭(尊崇)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끝나 굉장히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상월대제가 오미야 향의 경제에 중요한 제례라는 점을 부각한 점이다. 이전에는 가까운 곳부터 관서지방까지 여러 지방의 상인들이 오미야 향에 와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체류하였는데, 야타이가 중지된 이후 참배만 하고 체류는 하지 않고, 상인이 30분의 1로 감소하여 견, 숙박 등의 장사가 침체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해 1802년(享和2) 7월 9일에도 세 마치와 미야지(宮地)에서 ‘묘켄 상월제례 쓰케마쓰리 야타이(妙見霜月祭禮付祭屋台)’에 대해 한 통의 원서를 준비하고, 와리야쿠들도 도장을 찍어 제출하였다.¹⁶³⁾ 10월 15일 아침, 진야로 다이칸(小山丈助, 齊藤清七)의 편지가 와리야쿠 마쓰모토 소타로(松本宗太郎)에게 왔다.¹⁶⁴⁾ 편지에는 지난번에 청원한 것에 대해 오시 번에 문의했지만 승낙하지 않았고, 재작년(寛政12)에 지

162) [진략] 當社祭禮之儀者寛文年中之頃方相始り屋台四ツ出之十五才以下之兒童を以每歲十一月二日方三日之夜迄子供踊狂言致來無体年相續候所去未年在々都而祭禮御停止之旨一統依御觸當郷ニおいてハ相愼罷在候然所郷中之者共相歎候ハ當所祭禮之義ハ年來相續殊ニ從 御殿様御名代御參拜有之猶御堅メ之御役人中被差出誠ニ不輕義ニ奉存候間 [중략] 去年中右屋台仕度旨奉願上候所碁盤人形ハ苦間敷旨被仰渡候ニ付難有任御下知候 [중략] 當所祭禮之節ハ近國ハ不及申上方迄も相聞國々商人數多集會仕候得ハ十一月一日頃方同十一月一日頃迄致逗留猶參詣之群集難勝[數]許誠ニ廣大之神事然共御殿様御政道奉尊宗每年無何事相濟何許難有仕合奉存 [중략] 前書之通一兩年屋台大休候得ハ少々參詣雖有之候必不留足自然諸商人等前々三十分一右ニ准シ止宿諸雜用等殊ニ當郷第一之絹商賣も年々相減シ候得ハ逆も取續渡世も極難澁候者も多此義内々相歎 [중략] 幾重ニも先規之通屋台踊ニ御許有被爲仰付被下置候様奉願上候

秩父郡大宮郷

妙見神社

願人 藪田筑前守

享和元年酉年十一月

御領主様

御役所

(『藪田公用日記』, 秩父神社藏,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p.101~102)

163) 『秩父市史』資料編 第十二卷, p.88

164) 『秩父市史』資料編 第十二卷, p.147

시한 대로 조심해서 신사제례(神事祭禮)를 해야 한다고 분부하고 있다.

그로부터 4년 뒤, 1806년(文化3) 8월 28일에는 오미야 향 나누시 시로자에몬(四郎左衛門)이 쓰케마쓰리 재흥을 청원하기 위한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향내 교지(行事)들이 제출한 초안(案文)을 다이칸에게 가필을 받고 싶다고 청원하였다.¹⁶⁵⁾ 그리고 9월에 오미야 향의 세 마치고 미야지의 교지들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와리야쿠와 나누시가 확인한 후 다이칸에게 제출하였다.¹⁶⁶⁾ 이 청원서의 내용도 앞에서 본 청원서들과 비슷하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은 이 해에는 날씨가 좋아 풍작이어서 지치부령[御領分] 전체와 다른 영지에서도 기뻐하고, 연말에 함께 만물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상월대제를 떠들썩하게 하고 싶다고 언급한 점이다. 지난 청원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풍작을 기원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이들은 1799년(寬政11)에 오시 번에서 쓰케마쓰리를 금지할 때, 가사보코는 예외로 허가 해준 것을 상기시키며 야타이도 가사보코처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단, 밖에서 예능인[藝者]을 불러들이거나 교겐(狂言)을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약속하였다. 그리고는 “와키무라(脇村)에서 하는 제례는 쇠퇴[失墜]도 많이 있다고 들었지만 이곳은 산이 많은 곳[山國]에 있기 때문에 상월대제가 변창하면 자연히 타국 상인들도 들어와 지치부령이 운택해졌는데, 쓰케마쓰리를 중지한 이후에는 매년 마치가타가 쇠미하여 심각하게 탄식하고 마치가타에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자도 많이 있다”고 호소하며 쓰케마쓰리 재흥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청원은 승인되지 않았다.

1809년(文化6) 6월 12일, 관동취체출역(關東取締出役)¹⁶⁷⁾ 4명이 오미야 향에 방문하여 와리야쿠 집에서 투숙하였다.¹⁶⁸⁾ 그리고 다음 날 13일, 다이칸이 와리야쿠에게 중단하고 있던 상월대제 야타이의 재흥을 청원하면 허가될 수 있다고 귀띔해주었다.¹⁶⁹⁾ 다이칸은 “누군가 작년에 사원을 조사하러 오미야 향에 왔을 때 내밀히 이야기하였는데, 올해에는 야타이 흥행을 청원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세 명에게 물었더니, 두 명은 가능하다고 하고 한 명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165) 『秩父市史』資料編 第十二卷, p.600

166) ‘秩父神社所藏文書’,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104

167) 관동취체출역(關東取締出役)은 에도 막부의 직명으로, 1805년(文化2)에 관동 지방의 치안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관동 다이칸(關東代官)의 데쓰키(手付), 데다이(手代) 중에서 선임돼 간조부교(勘定奉行)의 직속으로 편성되어, 막부직할령 및 사령(私領), 사사령(寺社領)의 구별 없이 순회하면서 경찰권을 행사했다.

168) 『秩父市史』資料編 第十三卷(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2015), p.169

169) 『忍藩秩父領割役本家御用日記類抄』第三分冊, p.42

물어본 사람이 3명이지만 가능하다고 했으니 청원해도 좋다고 하였다. 다만 청원을 하려면 제례가 시작되기 상당히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때에 원서를 제출하도록 내밀히 오미야 향 주민들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와리야쿠는 “요즘 우리집[私方]에 머물고 있는 산조 젠다유(三上善太夫 : 관동취체출역 중 1명)에게 들었는데 막부[公儀]가 허가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정식[表向]으로 되는 일은 없다” 고 다이칸에게 전하였다. 다이칸과 와리야쿠가 상월대제의 쓰케마쓰리가 재흥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9월 11일, 오미야 향 무라야쿠닌들이 상월대제 쓰케마쓰리에서 야타이 춤[屋台踊] 재개를 위한 청원서를 정리하기 위해 협의하였다.¹⁷⁰⁾ 그 후 21일에 오미야 향 가미마치(上町) 야타이교지(屋台行司)들이 야타이를 청원하였다.¹⁷¹⁾ 다음 달 10월 18일, 다이칸이 오미야 향의 무라야쿠닌, 야타이 교지들을 진야에 불렀다.¹⁷²⁾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다만, 『屋台永代帳』에 “지난 오세(午歲 : 寛政10)까지 쓰케마쓰리를 흥행해왔는데, 다음 미년(未年 : 寛政11)부터 중지하라고 분부를 받아 작년 진년(辰年 : 文化5)까지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카6년(文化6歲 巳 : 1809년) 10월 18일 우에사마(御上様)의 허가를 받아 재흥합니다. 이에 따라 교지(行司) 이름을 조사”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³⁾ 25일에 다이칸이 부른 것은 쓰케마쓰리 흥행을 허가한다고 통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침내 오미야 향과 지치부 신사의 청원이 약 10년만에 이루어졌다.

한편, 재개된 쓰케마쓰리는 다시 화려한 풍속을 초래하였다. 1817년(文化14) 10월 2일, 와리야쿠는 지난 9월에 오미야 향 세 마치 및 미야지의 교지들이 진야에 불려가 오시 번의 고리부교로부터 상월대제에 대해 들은 내용을 문서로 전달하였다.¹⁷⁴⁾ 고리부교는 지치부 신사의 상월대제가 간세이11년에 금지되어 분카6년에 허가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한 후, “요즘 야타이뿐만 아니라 무대막(幕水引)까지도 점점 화려하게 되어 붉은색(猩猩緋緋) 모직물(羅紗) 등을 이용한다” 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쓰케마쓰리가 화려하게 되면 막부가 분부한 취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다시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이제는 영원히 하는 것이 어렵

170) 『秩父市史』資料編 第十三卷, p.187

171) 『秩父市史』資料編 第十三卷, p.193

172) 『秩父市史』資料編 第十三卷, p.210

173) ‘『屋台永代帳』, 秩父市中町町内會藏’,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116

174) 『忍藩秩父領割役松本家御用日記類抄』第三分冊, pp.84~85

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화려하게 보이는 물건은 사용하지 말고”, “영구히 제례를 계속하여 토지를 번창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신려(神慮)에 들어맞는 것이므로 본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다이칸을 포함한 오시 번의 관리들이 막부가 내린 법령을 지키는 데 전념했다면 쓰케마쓰리를 다시 금지시키면 그만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시 번청은 화려한 풍속을 단속하는 것보다 지치부 령의 번영을 더욱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미야 향 세 마치 및 미야지는 위 지시에 대한 의견을 적은 원서(願書)를 와리야쿠를 통해 다이칸에게 제출하였다.¹⁷⁵⁾ 여기에는 지난 분카6년에 상월대제 쓰케마쓰리 흥행을 청원한 것에 대해 번이 ‘어질고 은혜롭게(仁惠)’ 승낙하였는데 이것은 실로 ‘인정(仁情)’이라고 하고, 이번엔 고리부교가 마쓰리를 영구히 계속하고 토지를 번창시켜야 한다고 분부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쓰케마쓰리 흥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물건들을 사용하고 파손되었을 때는 수리를 하여 새로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고리부교가 무대막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무대막 등은 사년(巳年[文化6])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붉은색 모직물 등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보이는 물품은 이번엔 바꾸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새로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무대막을 파손될 때까지 이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검소한 물건으로 교체하여 계속하고 싶다고 청원하였다.

이상으로 쓰케마쓰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시기 지치부 견 전매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다. 쓰케마쓰리가 재흥되고 2년 후 1811년(文化8) 7월에 니시다 소자에몬(西田宗左衛門)¹⁷⁶⁾이 오시 번에 지치부 견의 전매를 제안하는 제안서를 올렸다. 지치부 령 다이칸 이치카와 기에몬(市川儀右衛門)은 니시다의 제안서를 와리야쿠 다카노 시치에몬(高野七右衛門)에게 내밀히 보여주었다.¹⁷⁷⁾ 그 내용은 지치부 견의 독점 판매 계획과 오동나무 재배[桐栽培]에 관한 것이었다. 제안서에서 니시다는 우선 기존에 견이 교토로 판매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고슈(江州)와 비슈(尾州)¹⁷⁸⁾가 교토에서 견을 전매하고 있는 예시를 들

175) 『忍藩秩父領割役松本家御用日記類抄』第三分冊, pp.86~88

176) 가키하라 겐이치는 니시다 소자에몬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시 번에 출입하는 상인 중 관서 지역의 사정을 자세히 아는 상인으로 추정하고 있다(柿原謙一, 上同, 1956, p.15).

177) 『秩父郷土史報』第2卷 第三號, 秩父郷土研究會, 昭和30',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 pp.135~137

178) 고슈(江州)는 오미 국(近江國)의 별칭으로 시가 현(滋賀縣)이며, 비슈(尾州)는 오와리

은 후 ‘지치부 권’ 도 이와 같이 독점 판매를 해야한다고 청원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전 1749년과 1780년의 청원과 같이 실행되지 않았다. 다이칸 이치카와 기에몬은 이 제안을 오시 번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니시다의 계획에는 오직 지치부에 세운 ‘지치부 견매집점(秩父絹買集之店)’에서만 거래를 하게 하고, “다른 자에게 지치부 권은 1필도 팔아서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이칸은 전매제를 시행하면 기존에 유통을 담당했던 상인들이 판매 경로에서 제외되므로 그들의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하쿠쇼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앞다투어 전매제를 시행한 다른 번들과는 비교된다.¹⁷⁹⁾

지금까지 오미야 향의 전개에서 막부와 번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파악할 수 있는 막부와 번의 역할과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마쓰다이라 사다노부와 막부의 명 다이칸들은 검약령과 풍속통제령을 대민정책으로 내세워 농촌을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이것은 오미야 향에는 적절한 정책이 아니었다. 벼농사가 적어 연공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오시 번 지치부 령에서 위 정책들은 ‘인정(仁政)’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치부 령 다이칸을 비롯한 오시 번 관리들은 막부의 명령을 따라 풍속을 통제하기보다는 마치를 번영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었다. 지치부 령 다이칸은 쓰케마쓰리가 금지되고나서 오미야 향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마다 그것을 묵살하지 않고 오시 번 청에 보내 번 관리들의 의견을 물었다. 번 당국에서는 오미야 향이 제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쓰케마쓰리 재흥에 대해 막부에 문의를 하였다. 또한, 다이칸은 청원서에 들어갈 내용을 지도하고, 주민들이 작성한 청원서를 가필해주며, 쓰케마쓰리가 허가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청원을 하도록 지시하라고 와리야쿠에게 내밀히 알려주기도 했다. 쓰케마쓰리가 허가된 이후에도 오시 번 고리부교가 오미야 향에 와서 이것이 다시 금지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지치부 령 다이칸과 오시 번 당국에서 쓰케마쓰리를 재흥시켜 오미야 향을 번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국(尾張國)의 별칭으로 아이치 현(愛知縣)의 서부에 해당한다.

¹⁷⁹⁾ 양잠의 발달로 농민의 손에 이익이 돌아가자 일본의 영주층은 이러한 상품 생산의 이익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했고(飯田藩), 그 결과 농민들과 대립이 발생하였다. 18세기 중엽에는 일본의 많은 영주들이 양잠의 이익에 주목하여 그 이익을 흡수하려 노력하였는데, 그 예로 아키타 번(秋田藩), 구마모토 번(熊本藩), 요네자와 번(米澤藩), 사가라 번(相良藩), 사쓰마 번(薩摩藩) 등이 있다(김광옥, 「日本 에도시대 薩摩藩의 養蠶業」, 『역사와경계』 57, 2005, pp.191~215).

고 이것은 막부와는 다른 오시 번의 ‘인정(仁政)’ 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번의 재정 확보를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의도야 어찌됐든 오미야 향 주민들도 오시 번 고리부교에 보내는 편지에 번이 쓰케마쓰리를 흥행하도록 허가해 준 것을 ‘인혜(仁惠)’, ‘인정(仁情)’ 이라고 표현하고, 마쓰리를 영원히 하여 토지를 번창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있다. 번이 지치부 령 오미야 향을 위해 막부와 다른 정책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지난 1781년 막부의 오미야 향 견시 회소 설치령을 묵살한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맺음말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자이카타마치를 지배 권력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마치(町)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파악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것은 당시 학계의 연구 조류가 그러했듯이, 자이카타마치에 관한 연구 역시 마치의 규약, 공간 구조, 주민 신분, 경제 활동, 사람들의 움직임 등 마치 내부의 사료들을 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이카타마치도 막부와 번의 지배 아래에서 성립·발전하였으므로 ‘지배’와 ‘자율’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마치의 자율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해당하는 막부와 번의 정책과 그것이 마치에 끼친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동에 있는 자이카타마치 중 무사시 국 지치부 군 오미야 향을 중심으로 자이카타마치가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 막부 정책의 영향과 오시 번(아베 씨 지배 시기)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 보았다.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시 번 번주 아베 씨는 역대 번주들이 막부 역직을 맡아 번주의 경비가 증가하여 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을 쌀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는 지치부 령은 오시 번의 중요한 현금 수입원이었다. 그중 오미야 향은 지치부 령 전체 무라의 연공 금액에서 약 20%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오미야 향에서는 매년 상월대제와 함께 열리는 견대시에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많은 양의 견이 거래되었다.

오시 번은 오미야 향의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주목하고 견시와 제례에 개입하였다. 18세기 초에 번주가 지치부 령을 순행하고, 이후 교호 연간(享保年間)부터 오미야 향의 상월대제와 견대시에 관한 새로운 정책들을 펼쳤다. 이 시기부터 화려한 쓰케마쓰리가 흥행되기 시작하고, 번에서 매년 번주의 대리인을 파견하였다. 또한, 견대시의 단속을 위한 관리를 파견하고, 매년 와리야쿠에게 견대시의 거래량을 보고하게 하였다. 이후 견대시와 견시의 거래량이 증가하여 18세기 후반에는 전성기를 이루고 그와 함께 다른 상공업도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오시 번은 오미야 향과 향내 부유한 주민들에게 어용금을 자주 걷었다. 즉, 오시 번은 번의 재정 확보를 위해 오미야 향을 주시하고, 이곳이 도시로 발전하는 데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편, 막번체제는 이념적으로는 농민에게 상행위를 금지했지만, 병농

분리의 전제, 참근교대제의 부담, 미납과 금납을 불문하고 연공이 재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거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농민들의 상업 활동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배자가 농업과 상업 중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정책의 차이가 발생했다.¹⁸⁰⁾ 오미야 향은 교호 개혁, 다누마 시대 중상주의 정책, 간세이 개혁의 중농주의 정책 등 막부의 정책에 따라 번성하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 특히 관동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견시에 관한 막부의 정책은 오미야 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때 오시 번은 막부의 명령을 기본적으로는 따르고 있지만 번의 이익과 지치부 령의 안정에 불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는 막부와 다른 정책 노선을 선택하여 오미야 향의 안정과 번영을 꾀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례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18세기 후반에 막부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미야 향을 포함한 무사시 국과 고즈케 국 견시에 회소 설치령을 내렸는데, 막부의 명령을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막부의 명령이 전달된 고즈케 국 서부에서는 대규모 잇키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막부의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오미야 향에서는 막부의 명령이 폐지될 때까지 오시 번에 갑자기 정지된 견시의 재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규모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시 번이 막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지치부 령의 주민들로부터 걷는 연공 및 어용금이 주요 재원 중 하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막부의 명령을 따라 견시에 회소를 설치하고 견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되면 견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쿠쇼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오시 번은 오미야 향의 견시를 보호하기 위해 막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례는 19세기 초반에는 막부의 풍속통제령으로 오미야 향의 쓰케마쓰리가 금지되어 오미야 향에 경제적 타격을 주자 오시 번 당국과 지치부 령의 다이칸이 쓰케마쓰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지치부 령 다이칸은 오미야 향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마다 그것을 묵살하지 않고 오시 번청에 보내 번 관리들의 의견을 물었다. 번 당국에서는 오미야 향이 제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쓰케마쓰리 재흥에 대해 막부에 문의를 하였다. 또한, 다이칸은 청원서에 들어갈 내용을 지도하고, 주민들이 작성한 청원서를 가필해주며, 쓰

¹⁸⁰⁾ 速水融 著, 上同, p.179

케마쓰리가 허가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청원을 하도록 지시하라고 와리야쿠에게 내밀히 알려주기도 했다. 쓰케마쓰리가 재개된 이후에도, 막부에 의해 다시 금지될까 봐 화려하게 하지 않도록 오미야 향 주민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계속해서 오미야 향의 번성에 신경을 썼다. 이처럼 지치부 령 다이칸과 오시 번 당국에서 쓰케마쓰리를 재흥시켜 오미야 향을 번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베 씨 지배 시기 오시 번은 지치부 령에 전매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民)’ 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 ‘인정’ 이기도 했다. 김광옥은 사쓰마 번이 양잡업과 흑사탕 생산 등 수익성이 좋은 산업에서 생산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그 이익을 번이 차지했기 때문에 막말기에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 민의 반발과 고통은 심했다고 지적했다.¹⁸¹⁾ 오시 번도 마쓰다이라는 지배 시기에 막말 개항으로 외국 무역이 개시되자 생사를 전매했지만, 적어도 아베 씨 지배시기에는 독자적인 ‘인정’을 펼쳤음을 오미야 향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치부 사건은 시장의 격심한 변동에 따라 농민들이 궁핍한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정부가 오시 번이 행했던 것과 같은 전통적인 관념의 ‘인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오미야 향은 막부의 정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오시 번과 번의 관리인 지치부 령 다이칸은 오미야 향의 번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오미야 향의 발전은 주민들의 ‘자치’ 보다는 번과 주민들의 ‘협치(協治)’ 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베 씨의 지배 시기에 오미야 향의 발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미야 향 내부의 상황뿐 아니라 오시 번, 특히 다이칸의 역할과 동향, 그리고 막부 정책의 영향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¹⁸¹⁾ 김광옥, 上同

참고 문헌

1. 사료

- 『徳川禁令考』前集第6(石井良助 校訂, 創文社, 1959)
- 『桐生織物史』上卷(桐生織物史編纂會 編, 桐生織物同業組合, 1935)
- 『新訂寛政重修諸家譜』(高柳光壽・岡山泰四・齋木一馬 編, 續群書類從完成會, 1964~1967)
- 『新井白石全集』第三(今泉定介・市島謙吉 編, 東京: 吉川半七, 1906)
- 『新編埼玉縣史』通史編3~4(埼玉縣 編, 埼玉縣, 1988~1989)
- 『新編武藏風土記稿 卷之255 秩父郡』(內務省地理局, 明17.6)
- 『阿部家史料集 公餘錄』上~下(兒玉幸多 校訂, 吉川弘文館, 1975~1976)
- 『中町屋台永代帳(屋台道具覺)』上~下(中町古文書研究委員會 編 中町會, 2005)
- 『御觸書寛保集成』(高柳眞三・石井良助 編, 岩波書店, 1958)
- 『御觸書天保集成』下(高柳眞三・石井良助 編, 岩波書店, 1958)
- 『宇下人言・修行録』(松平定信 著, 岩波書店, 昭和17)
- 『忍藩秩父領割役高野家御用日記類抄』(高野家 編, 秩父市誌編纂委員會 外 校定, 秩父市誌編纂委員會, 1960)
- 『忍藩秩父領割役松本家御用日記類抄』 第1~5分冊(松本家 編, 秩父市誌編纂委員會 外 校定, 秩父市誌編纂委員會, 1960~1961)
- 『中町議定書寫 天保6年』(片山家(秩父市) 編, 秩父市誌編纂委員會, 1969)
- 『秩父事件史料』2(埼玉新聞社 編, 1972)
- 『秩父市史(忍藩割役名主御公用日記)』資料編1~13(秩父市立圖書館 編, 秩父市, 1999~2015)
- 『秩父市誌』(秩父市史編纂委員會, 秩父市, 1962)
- 『秩父地域絹織物史料集』(柿原謙一 編, 埼玉新聞社, 1995)

2. 연구서 및 단행본

1) 국문

- 박진한, 『일본근세의 서민지배와 검약의 정치』, 혜안, 2010
- 박훈,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2014
- 北村哲郎 著, 李子淵 譯, 『日本服飾史』, 경춘사, 1999
- 小池三枝 外 著, 허은주 譯,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어문학사, 2005
- 速水融 著, 조성원 · 정안기 譯,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혜안, 2006
- 한국고문서학회 編, 『동아시아 근세사회의 비교 신분 · 촌락 · 토지소유관계』, 혜안, 2006

2) 일문

- 高橋康夫 · 吉田伸之 編, 『日本都市史入門 I 空間』, 東京大學出版會, 1989
- 高橋恒夫, 『近世在方集住大工の研究』, 中央公論美術, 2010
- 菊地ひと美, 『江戸衣裝圖鑑』, 東京堂出版, 2011
- 堀江保藏, 『近世日本の經濟政策』, 有斐閣, 1942
- 金澤康隆, 『江戸服飾史』, 青蛙房; 新裝版, 2016
- 埼玉新聞社 編, 『秩父地方史研究必携2(近世)』, 埼玉新聞社, 1979
- 埼玉縣秩父纖維工業試驗場 外編, 『秩父織物變遷史』, 埼玉縣秩父纖維工業試驗場 外, 1960
- 吉田伸之 · 佐藤信 編, 『新體系日本史6 都市社會史』, 山川出版社, 2001
- 吉田伸之, 『都市』, 岩波書店, 2015
- 吉永昭, 『近世の專賣制度』, 吉川弘文館, 1996
- 大石學 編, 『享保改革と社會變容(日本の時代史16)』, 吉川弘文館, 2003
- 渡邊尙志 編, 『近世地域社會論-幕領天草の大庄屋 · 地役人と百姓相續』, 岩田書院, 2007
- 渡邊浩一, 『近世日本の都市と民衆』, 吉川弘文館, 1999
- 藤田覺 編, 『近代の胎動(日本の時代史17)』, 吉川弘文館, 2003
- 藤本保太, 『日本の專賣政策』, 多賀出版, 1990
- 牧原憲夫, 『民權と憲法 シリーズ日本近現代史 2』, 岩波書店, 2006
- 本村礎 · 杉本敏夫 編著, 『譜代藩政の展開と明治維新』, 文雅堂銀行研究社, 196

- 寺阪昭信・平岡昭利・元木靖 編, 『關東 II 地圖で讀む百年 埼玉・茨城・栃木・群馬』, 古今書院, 2003
- 杉森哲也, 『近世京都の都市と社會』, 東京大學出版會, 2008
- 三井文庫 編, 『三井事業史 本篇』 第1卷, 三井文庫, 1980
- 色川大吉, 『同時代への挑戰』, 筑摩書房, 1982
- 水本邦彦, 『村 百姓たちの近世〈シリーズ日本近世史 2〉』, 岩波新書, 2015
- 兒玉幸多・北島正元, 『新編物語藩史 第3卷』, 新人物往來社, 1976
- 伊藤好一, 『近世在方市の構造(日本史研究叢書1)』, 隣人社, 1967
- 長谷川伸三, 『近世後期の社會と民衆』, 雄山閣, 1999
- 井上幸治, 『秩父事件 自由民權期の農民蜂起』, 中央公論社, 1997
- 朝尾直弘, 『朝尾直弘著作集6 近世都市論』, 岩波書店, 2004
- 佐々木潤之介 編, 『日本民衆の歴史4 百姓一揆と打ちこわし』, 三省堂, 1974
- 竹内誠, 『寛政改革の研究』, 吉川弘文館, 2009
- 津田秀夫, 『封建社會解體過程研究序說』, 塙書房, 1980
- 千嶋壽, 『秩父大祭 歴史と信仰と』, 埼玉新聞社, 1981
- 行田市郷土博物館 編, 『常設展示解説圖録 : 行田市郷土博物館』, 行田市郷土博物館, 2014
- NHKデータ情報部 編, 『江戸事情 ヴィジュアル百科 第6卷. 服飾編』, 雄山閣出版, 1994

3. 연구논문

1) 국문

- 김광옥, 「日本 에도 시대 薩摩藩의 養蠶業」, 『역사와경계』 57, 2005, pp.191~215
- 박경수, 「國産專賣政策과 商人仲間 : 天明期(1780년대) 仙台藩을 중심으로」, 『日本歷史研究』 12, 일본사학회, 2000, pp.79~99
- 박수철, 「織田정권의 ‘武家神格化’ 와 天皇」, 『역사교육』 121, 역사교육연구회, 2012

박훈, 「덕천시대(德川時代) 막부(幕府)와 반(藩) 재정의 특색 - 전매제(專賣制) 실시를 중심으로 -」, 『한성사학』 20, 2005, pp.61~83

박훈, 「‘名君’ 德川齊昭의 對民활동과 그 의의: 地方役人접촉과 巡村」, 『일본역사연구』 32, 2010, pp.127~155

2) 일문

渡邊浩一, 「近世後期における在郷町の住民結合」, 『日本文化研究所研究報告』別卷 24, 1987

林玲子, 「關東生絹の流通構造」, 『土地制度史學』 6-1, 1963, pp.55~72,

山澤學, 「秩父郡大宮町における他國商人の定着」, 『歴史地理學調査報告』 7, 筑波大學歴史・人類學系歴史地理學研究室, 1996, pp.49~59

船杉力修, 「秩父大宮における町の展開と機能-秩父市中町を事例に-」, 『歴史地理學調査報告』 7, 筑波大學歴史・人類學系歴史地理學研究室, 1996, p p.17~33

柿原謙一, 「忍藩秩父領代官市川儀右衛門と青木清右衛門」, 『武藏野史談』 3-1, 埼玉縣郷土文化會, 1956, pp.12~19

柿原謙一, 「忍藩秩父領と田沼時代」, 『埼玉地方史』 24, 1989, pp.1~12

長谷川伸三, 「幕藩體制崩壞期における在郷町の動向-上州大間々町の場合-」, 『地方史研究』 14(4), 1964, pp.28~49

田中達也, 「近世大宮町の形成過程」, 『歴史地理學調査報告』 7, 筑波大學歴史・人類學系歴史地理學研究室 1996, pp.1~15

朝尾直弘, 「近世の身分制と賤民」, 『部落問題研究』 68, 1981

酒井一輔, 「近世關東在方町の社會關係」, 『史觀』 159, 2008

酒井一輔, 「近世後期關東在方町における町規約と構成員」, 『史學雜誌』 123(3), 395, 2014

中島明, 「天明絹騒動とその周邊(1)」, 『群馬文化』 125, 群馬縣地域文化研究協議會, 1971.10

中島明, 「天明絹騒動とその周邊(2)」, 『群馬文化』 127, 群馬縣地域文化研究協議會, 1971.12

中島明, 「天明絹騒動とその周邊(3)」, 『群馬文化』 129, 群馬縣地域文化研究協議會, 1972.2

中島明, 「天明絹騒動とその周邊(4)」, 『群馬文化』 132, 群馬縣地域文化研究協

議會, 1972.5

中島明, 「天明絹騒動とその周邊(5)」, 『群馬文化』134, 群馬縣地域文化研究協議會, 1971.8

川崎俊郎・山澤學・河野敬一, 「秩父大宮の都市形成と商業の變遷」, 『歴史地理學調査報告』6, 筑波大學歴史・人類學系歴史地理學研究室, 1994, pp.103~121

平野哲也, 「秩父絹の生産と流通に関する一考察」, 『歴史地理學調査報告』7, 筑波大學歴史・人類學系歴史地理學研究室, 1996, pp.61~73

4. 기타

工藤寛正 編, 『江戸時代全大名家事典』, 東京堂出版, 2008

國史大辭典編輯委員會 編, 『國史大辭典』1~14卷, 吉川弘文館, 1979~1993

日本歴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 『日本歴史大辭典 5 増補改訂版』, 河出書房新社, 1968

大塚史學會 編, 『郷土史辭典 新版』, 朝倉書店, 1969

平凡社地方資料センター 編, 『埼玉縣の地名(日本歴史地名大系)』, 平凡社, 1993

日文要旨

関東在方町の発展における幕府・ 藩の役割と性格

-武蔵国秩父郡大宮郷を中心に-

姜民珠

東洋史学科

ソウル大学校大学院

本論文では、江戸時代(1603~1868)の関東にあった武蔵国秩父郡大宮郷を研究対象とする。秩父郡は、1884年(明治17)に発生した秩父事件にみられるように、大抵は農村地域として知られるが、秩父郡の行政の中心地であった大宮郷は、江戸時代には秩父神社と秩父絹を中心に栄えた在方町であった。

在方町とは、郡奉行・代官支配の「在方」となった地域に存在する都市空間をいう。幕藩体制下では武士などと農民との居住地は原則的に分離され、村には農民だけが残り、武士をはじめとして、商人、職人、寺社関係者らは町に居住した。しかし「在方町」は、農村地域に存在して法的には村でありながらも、実際には構成員たちが商業活動をし、一部の武士も滞在する「郷村都市」であった。したがって、在方町の研究を通じて、理念上商業が禁止された農村地域が次第に都市化していく様相を検討することが可能となり、ここに研究の意義がある。

従来の研究において在方町は、支配権力の影響という観点からではなく、町の住民が自律的に運営する空間としてとらえられてきた。これは1980年代以降の日本の都市史学界における研究潮流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在方町に関する研究が、町内の規約、空間構造、住民身分、人々の動きや経済活動など、町内部の史料を主に分析されたためである。

しかし、在方町の住民が幕府や藩の支配から完全に自由でない以上、住民の自律性だけを評価することはできない。在方町自体もまた、幕府と藩の支配を受けて成立・発展しており、「支配」と「自律」の二つの側面を同時に分析する必要がある。すなわち、町の自律的側面だけでなく、「国家権力」にあたる幕府や藩の支配政策および、それが町に及ぼした影響に

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大宮郷が在方町へと発展していく過程を検討しながら、阿部氏支配の時期における忍藩の役割や幕府政策の影響について明らかにした。

以上で検討したことを整理すると次の通りである。忍藩の藩主阿部氏は、歴代藩主が幕府の役職を務めていたことから藩主の経費が増加し、藩財政は逼迫した。このような状況下で、秩父領（秩父郡の忍藩領）は年貢を米ではなく現金で納付しており、忍藩にとって重要な現金収入源であった。そのうち大宮郷は、秩父領全村の年貢の約20%を負担していた。また、大宮郷において毎年霜月大祭とともに開かれる絹大市には、人々が様々な地方から訪れ、多量の絹が取引されていた。

忍藩は、大宮郷のこのような経済的利益に注目し、絹市と祭礼に介入した。18世紀初め、藩主は秩父領を巡行し、享保年間から、大宮郷の霜月大祭と絹大市に関する新しい政策が展開された。この時期から霜月大祭で華やかな付祭が興行されるようになり、藩主からは藩主代理人が派遣された。

また、絹大市には、取り締まりのための役人が毎年派遣され、割役に絹大市の取引量を報告させた。以後、絹大市と絹市の取引量は増加し、18世紀後半には全盛期を迎え、他の商工業も繁盛した。そしてこの時期に忍藩は、大宮郷と郷内の富裕者に度々御用金を収めさせた。すなわち、忍藩が藩財政確保のために大宮郷の絹市と祭礼にかかわ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大宮郷の都市への発展に一役買ったのである。

一方、幕藩体制下では理想的には農民は商行為が禁止された。しかし、兵農分離の前提はあるものの、参勤交代の費用負担もあったことから、米納・金納を問わず年貢を財政に転換する過程では市場を経るしかなく、幕府・藩は農村地域での農民の商業活動を黙認せざるを得なかった。したがって、幕府が農業と商業のどちらに重点を置くかによって政策の違いが発生した。大宮郷は、享保改革、田沼時代の重商主義政策、寛政改革の重農主義政策などの幕府の政策によって、繁栄することもあれば経済的打撃を受けることもあった。特に関東地方に位置したことで、絹市に関する幕府の政策は、大宮郷に直接的な影響を与えた。この時忍藩は、幕府の命令に基本的には従ったが、藩の利益と秩父領の安定に不利な政策が施行された場合には、幕府と異なる政策路線を選択し、大宮郷の安定と繁栄を図った。

これに関して、本研究では2つの事例から明らかにした。一つは、18世紀後半、幕府が新たな財源調達のため、大宮郷を含む武蔵国や上野国の絹市に対し改会所を設置するよう命令を出した時の事例である。幕府の命令が伝わった上野国西部では、大規模な一揆が発生し大きな被害を受けたが、大宮郷では、忍藩が突然停止とした絹市の再開を要求するのみで、大規模な蜂起は起きていない。忍藩は会所設置に批判的な立場にあり、幕府の命令を意図的に伝達しなか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れは、秩父領民から徴収する年貢や御用金が、藩の主な財源の一つであったためと推測される。幕府の命令に従って絹市に会所を設置し、絹商人たちから税を取り立てれば、絹の価格が自ずと上昇し、そうなれば秩父領民にも打撃を与えるだろう。したがって、忍藩は、大宮郷の絹市を保護するために幕府の命令に従わなかったとみられる。

もう一つは、19世紀初め、幕府の風俗統制令によって大宮郷の付祭が禁止された時の事例である。この時、忍藩当局と秩父領の代官は、大宮郷に経済的打撃を与えらるゝとして、付祭が再開されるよう積極的に動いた。秩父領代官は大宮郷の住民が願書を提出する度に、それを忍藩役所に送って藩役人たちの指示を仰いだ。藩の側もまた、大宮郷が祭礼を再開できるよう指導し、付祭再興について幕府に問い合わせをおこなった。また、代官は願書の内容にまで立ち入ってさまざまな指示をし、住民が作成した願書に加筆し、付祭が許可さ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請願を働きかけるよう、割役に内密に知らせていた。付祭が再開された後には、華やかになることで幕府によって再び禁止されることのないよう、郡奉行が大宮郷の住民に注意を与えながら、引き続き大宮郷の繁盛に気を遣った。このように、秩父領代官と忍藩当局で付祭を再興させ、大宮郷を繁栄させようと努力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一方、阿部氏の支配時期、忍藩は秩父領で専売制を実施することはなかった。これは「民」と利益を争わない「仁政」でもあった。松平氏の支配時期になり、幕末の開港で外国貿易が開始された際には、忍藩においても生糸の専売がおこなわれたが、少なくとも阿部氏の支配時期には独自の「仁政」が繰り広げられたことが大宮郷の事例から確認できる。秩父事件は、市場の激しい変動により農民が窮乏したにもかかわらず、忍藩が行なったような伝統的な観念の「仁政」を明治政府が施さなかったために爆発し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大宮郷は、幕府の政策に直接影響を受けたが、その中でも忍藩と藩の管理下にある秩父領代官は、大宮郷の繁栄に努めていた。すなわち、大宮郷の発展は、住民の「自治」のみで成ったのではなく、藩と住民の「協治」によって行われたと考えられる。したがって、大宮郷の発展状況をとらえるためには、大宮郷内部の状況を見るだけでなく、忍藩、特に代官の役割と動向、そして幕府政策の影響をも併せて考慮しながら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キーワード： 在方町、幕府、忍藩、秩父郡、大宮郷、絹市、祭礼

Student Number：2015-22460